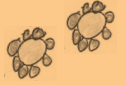


ISSN 2383-9872

말 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2018년 봄



노들마라톤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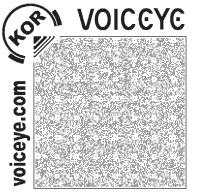


* 표지그림
김경남·박희용·이봉규·정지민·김영빈



노들과 함께 '평등한 밥상'을 차려봅시다.

* 2018년 6월 9일, 노들야학 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후원마당을 엽니다



노들바람 이 야 기 구 성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 03 안에선 들을 수 없는 말 * 노규호
- 05 **[형님 한 말씀]** 춤고 긴 겨울을 보내고 * 김명학
- 07 **[장판 핫이슈]** 3평 투쟁이 열어놓을 세상 * 김순화
- 09 **[고병권의 비마이너]** 어떻게 운명의 따귀를 올려볼일 것인가
- 13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 박철균
- 16 이제 진짜 승리하는 한판의 투쟁을 준비합니다 * 박경석

- 19 마주보지 않아도 손 잡지 않아도 * 장선정
- 21 2017년 노란들판 모두의 시상식
- 24 어둠의 조직, 노란들판 [배부] 이야기 * 송주훈
- 26 2018년 노들야학 학생회장단입니다! * 이상우, 최영은



- 27 **[노들아 안녕]** '우리들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 박태수
- 29 **[노들아 안녕]**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 이수미
- 30 **[노들아 안녕]**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 * 곽남희
- 31 **[노들아 안녕]** 노들을 다시 배운다 * 천성호

- 32 **[교단일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조모임을 찾아서... * 박임당
- 35 인포습카페별곡로 놀러오세요~! * 유선
- 38 장애인문화예술관이 또 이사했어요~ * 주은아
- 39 희망의 자립하우스 in 종로구 * 송정규

- 42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나의 탈시설기 * 정소영
- 45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너무 많은 차별들이 보이더라고요 * 김훈
- 46 **[보글보글 활보 상담소]** 활동보조인과 노동권, 그리고 * 서기현
- 50 가족 여행 앞에서 나의 '존재'가 지워졌다 * 김상희

- 53 # 희망의 봄을 불러옵니다 * 이종란
- 57 "미안해요"를 넘어서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을 위하여 * 하금철
- 62 **[노들은 사랑을 싣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갔다가...! 만난 노들, 그리고 * 미경 인터뷰 * 김상희
- 66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배움의 끈을 잇다. 학봉장학금 * 김진수
- 71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인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114호 2018-03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안연주 정소영 민아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최근에 공연 두 편을 보았습니다. 두 편 모두 야학 교 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참여하는 극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공연의 이름을 <나는 인간>이라고 지었습니다. 극 안에서 배우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누군가는 양팔을 퍼덕거리고, 누군가는 발을 구르며 무대를 활보하다가 돌연 객석을 바라봅니다. 알다시피, 아무도 날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이리코로시기> 한 친구는 ‘나무 아래에 앉아’ 어떤 여성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 계속해 듣고, 그녀들 몸에 남은 기억들을 살피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글로 적으며 되뇌어 보고, 자기의 몸 안에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도록 해봅니다. 몸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분열하다가, 자기를 상실합니다. 자는 듯, 죽은 듯 축 늘어져 누운 몸들. 그 몸들이 어느새 다시 깨어나 관객을 향해

앉아 괴기스럽게 웃어재깁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 4월. 이년 전 신문 기사를 다시 찾아 읽어봅니다. 신형철. “내가 지금 아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것들뿐이어서, 내가 아는 슬픔은 내가 느낀 슬픔뿐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부딪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진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 영원히 알 수 없다면, 영원히 공부해야 한다. 슬픔에 대한 나의 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또 글을 쓴다.”

안에서 들을 수 없는 말

노규호

장애학 공리소 연구원입니다.
노들야학 교사이기도 합니다.
푸코의 글을 노들야학 수업에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격리생활은 2년간의 군 생활이다. 군에 들어가 네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전방으로 가게 됐다. 해안바닷가 산꼭대기 낙후된 초소. 맘 놓고 쓸 수 있는 전화기도 없었다. 3개월 정도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못하니 내 몸뚱이가 온전히 이곳에 내맡겨진 기분이 들었다. 생활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밀려왔다. 매일 매일 자기성취와는 무관한 일들. 그렇다고 딱히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 단지 감옥엔 갈 수 없어 들어온 곳에서 나갈 날짜 세는 것이 공통의 희망이었다. 스무 명 남짓의 남성들을 외진 바닷가에 붙잡아 놓고 위계질서 아래 살게 하니 스트레스를 못 참는 사람도 생겼다. 탈영시도와 성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휴가를 나오면 나는 눈 맞는 강아지 마냥 집에 들려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미리 연락해 놓은 친구들을 만났다. 안에서 먹을 수 없었던 음식들을 먹고, 못 살게 굴던 선임 병 옥도 하고, 재밌었던 일화들을 실컷 떠들어 댔다. 밥

을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는 구보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조깅을 할 수 있다는 거, 정해진 어투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며 크게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것. 그렇게까지 눈치가 안 보이는 것. 그것이 그렇게나 기뻐다.

30년에서 40년. 어느 사람들이 시설에 격리되어 산해의 숫자다. “여기서 100년을 넘게 산 것 같아” 한 시설 거주인에게서 내가 들은 말이다. 나는 그의 경험을 오롯이 체감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아직도 군 생활 2년을 다른 때보다 몇 십 배 더 길게 느끼는 것처럼 그 분도 그때의 그 시간들이 뭘 해볼 수 가 없었던 시간들, 붙잡혀 있던 시간들, 일어나도 좀처럼 가지 않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나는 여기서 무기징역을 살았습니다.” “이유 없이 잡아와놓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무척 임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지) 내 귀로 똑똑히 들은 말들이다.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랜 기간 갇혀 지내야 했다.

갇힌 것은 몸뿐만이 아니었다. 꿈도 갇혀 버렸다. “나 가면 무얼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지금 몸으로는 불가능할 법한 30년, 40년 전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해 봤던 일들을 꺼내놓으신다. 시설 안에서 “뭘 해볼 수 있겠다” 거나 “나가서 뭘 해보고 싶다”고 만드는 체험이 없었던 까닭일 터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종종 ‘탈 시설 욕구 조사’라는 말로 거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 일종의 뻔뻔함을 느낀다. 우리의 ‘무관심’, ‘준비되지 않음’을 그들의 ‘비욕구’라는 말로 살그머니 감추는 말처럼 느낀다. 시설생활을 정말 참다 참다 못 견디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말이라서 그렇다. 개인의 의사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욕구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처음엔 안 나간다고 손 사례를 치던 분들도 “이제는 활동 보조인이 몇 시간 함께 할 수 있다. 주택이 가능하다. 같은 장애 정도로 바깥에서 살고 있는 다른 형들이 있다”고 하면 굳은 확신도 “이래도 괜찮냐” “시간은 어디서 몇 시간 나오냐” 라는 물음으로 바뀐다. 다시 들어보라고 한다. 감금과 격리, 동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오고 싶으세요? 안 나오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것은 “여기가 죽기보다 싫진 않으시죠? 견딜 만은 하시죠?” 라는 물음과 다르지 않다.

격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 장애가 있어 가족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 나이가 많고 나가도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였다. 나는 이 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나는 끝났다.” “(자기 팔과 다리를 가리키며) 이게 이런데..”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고” 정말 어쩔 수 없어 시설을 찾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런 말들은 다름 아닌 바로 시설이 낳고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나는 탈 시설한 장애

인들에게서 “힘들다” 소리는 들었어도 이런 자기포기의 말들은 듣지 못했다.

시설. 사회에서 “버려진” 이라는 낙인을 들고 살아야 하는 격리생활은 자기포기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제 아무리 시설 근로자가 선하고 좋은 뜻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의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에 맞설 수 있는 힘.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보는 것.

시설에 사람들을 만났던 날. 저녁을 먹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금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의 대단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고. 무슨 말인가 싶어 물어보니 자기가 아는 한 형은 오늘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장애 정도는 더 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십년간 살던 시설에서 나오겠다고 결심도 하신 거고, 그동안 뵈아보지 못한 지하철도 사용하시는 거고, 자립 주택생활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니 참 ‘대단하다’ 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는 거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빨리 시설에서 나가서 내가 잘 몰라봤던 그 일상의 말들을 다시 듣고 싶었다. “지하철을 어떤 것을 타고 왔다, 내 집은 어딘데 어떻게 왔다, **을 해보면 어떻게, 요즘은 뭘 해보고 있어” 라는 말들. 이 말들이 한 형에게는, 한 친구에게는 몇 십 년만의 탈출이 낳은 말. 자기를 규정하고 가르던 그 척도를 움직여 일으킨 말이라 생각이 드니 다시금 그 말들을 느끼고 싶어졌다.

형님 한 말씀

좁고 긴 겨울을 보내고

김명학

노들야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좁고 긴 겨울을 보내고」 김명학.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좁고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이 우리 곁에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좁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이전 얼었던 대지도 서서히 따뜻한 봄기운에 풀려 모든 생명들이 그 추위를 잘 이겨내고 힘차게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은 여김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들의 투쟁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3층적폐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폐지, 중증 장애인 1만개 일자리 만들기, 장애인 이동권 등등... 이 있습니다. 이런 투쟁들은 다행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의 투쟁들을 접할 수는 없습니다. 논의는 계속하고 투쟁도 계속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기대는 아니라도 적은나마 듣고 반응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쿠자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전혀 우리들에게 관심조차 없으니까요. 우리들이 투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있다고 거부하고 죽어가기는 싫습니다. 우리들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리 살고 싶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 그리고 중증 장애인 1만개 일자리 만들어 그 누구도 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중증 장애인도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도 중요한 것이죠. 어느 무엇이 그대의 이동을 막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이동하는

데 그 이동을 막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 이동을 막는 대상들과 싸우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동권은 장애인이나 비 장애인이나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권도 우리들의 투쟁이 필요 합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도 꼭 해야 할 우리들의 투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인권을 빼앗긴 채 창살 없는 감옥인 시설에서 하루 하루를 고통 받습니다. 한 사람이 탈시설을 하여 이 시설에 있는 중증 장애인을 한사 그래서 그 동안 자신들의 위저와는 상관 없이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와 폭력과 인간다운 삶을 포기 아닌 빼앗긴 삶을 되찾고 인간답게 자신의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 했음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투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느리게 느리게 확실하게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투쟁으로 이 사회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고. 중안 담이 없기 진행 됨을 볼때 희망이 많은 것이 보여 집니다. 우리들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하다보면 반드시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이 될 거라 믿어 봅니다. 나는 투쟁이란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머기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쟁을 실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쟁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이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이 많이 들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들의 올바른 투쟁의 길을 갑시다. 우리 서로 굳게 잡은 손 꼬옥 잡고 그렇게 이 권을 갑시다. 그래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중증 장애인 1만개 일자리 만들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확대. 장애인 고용공단 혁신하라.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이 이동권 투쟁 등등... 이런 투쟁들을 하나 하나 잘 챙기면서 비록 느리게. 느리게 그 성과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걸기게 꾸준히 잡은 손들을 꼬옥 잡고 갑시다. 건강 또한 잘 챙기면서 갑시다. 휴고 긴 거리를 보내고 세뱃을 맞이 하는 듯이.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우리 갑시다. 모두들 환경기에 건강을 잘 챙기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봄을 맞으시길...

장판 핫이슈

3평 투쟁이 열어놓을 세상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그리고 평등을 말하라!

김순화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부터 소통하고, 함께하고, 멋지게 싸우고, 항상 현장의 중심에 서 있는 (사실.. 정말 바쁜 ㅎㅎ)서울장차연만의 매력을 알아가느라 정신없는 요즘을 보내는 김순화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88서울올림픽 이후로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1988년 그 후, 지금 우리는 아직도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문화예술권리, 그리고 사회보장권리 4가지의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각 부처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투쟁을 통해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1988년 ‘(경증장애인 중심의)양대 법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일할 권리’와 ‘복지’를 넘어서, 이동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보장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즉, 장애인의 4가지 평등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을 넘어서 ‘평등올림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 그리고 ‘배

제와 차별’의 시대를 우리 손으로 끝내자.” 이 시점에 박경석 대표의 이 투쟁 제안이 있었고, 우리는 ‘3평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평창, 평양, 평화’를 통해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기조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우리의 3평 투쟁 기조는 2015년 UN총회의 기본정신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이다. 평등 없이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외된 누군가는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3평 투쟁의 목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예술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안 전달 및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합의를 하고 예산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의 주체로서 일할 일자리가 없었던 것,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일상적인 이동할 권리에서 배제되었던 것, 장애인의 문화예술은 동정, 시혜, 극복의 신화로만 비쳐졌던 것,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에 묶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 이처럼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 살아도 시설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세상을 이제는 바꾸자는 목적으로 각 4개 부처의 장관들과의 면담을 쟁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월 2일 3평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 9일 개회식 맞이 평등올림픽 투쟁, 2월 13일 ~ 15일 2박 3일 동안 서울역 농성을 하며 진행 된 설 귀향객 집중 선전전 및 각 당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면담잡기 투쟁, 3월 7일 ~ 3월 10일 투쟁을 통해 도중인 장관을 축사로 이끈 평창 패럴림픽 국제컨퍼런스, 3월 9일 패럴림픽 개회식 맞이 3평 비전선포식까지.. 노동권 농성을 접은 지 얼마 안 된 와중에 실 틈 없이 각 단위들이 서로 협력하며 거대한 투쟁들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의 면담 약속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쟁취해낸 것 같다.

작년 12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나로서는 엄청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애인 운동.. 30년이 넘는 정말 긴 시간동안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했다. 문화, 사회적 이슈, 기계의 발달, 4차 산업혁명까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의 속도는 똑같았을까? 장애인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왜 이렇게 느릴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의 속도는 빠르고, 누군가의 속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속도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일까?

지금 외치고 있는 이동권, 노동권, 문화예술권리, 사

회보장권리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다.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를 생존의 권리로서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 나라에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기는 또 많은 것일까. 대학을 갓 졸업한 뒤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며 느꼈던 의문점과 그 이후 IL이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의문점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정말 어려웠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서울장차연 활동 이후로도 또 계속해서 생겨나는 세상의 구조에 대한 의문점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만 이제는 그 해답을 조금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전에 탈시설해서 자립생활주택에 머무르게 된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적이 있었다. 나이는 나와 동갑이었는데 태어나서 시설에서 10대, 20대를 보낸 삶의 과정들을 들었다. 내가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 때도 의문점이 들었었다. 그이와 나의 차이점은 장애유무, 태어난 집안의 자본소유 크기 정도일 것 같다.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왜 내가 살아온 삶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의 차이 때문이었다. 당연한 것을 목숨 걸고 외쳐야하는, 계속 해서 배제되어가고 누군가의 속도에 숨이 벅차게 따라가야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잔인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 그리고 ‘배제와 차별’의 시대를 우리 손으로 끝내자.” 3평 투쟁의 기조가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와 닿을 것이다. 30년이 넘는 길고 외로운 투쟁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3평 투쟁을 통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제발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적폐들을 끝내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한다.

고병권의 비마이너

어떻게 운명의 따귀를 올려붙일 것인가

장애인 투사 이브라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

고병권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동장애학공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지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즈음해서 몇몇 국제 행사들이 열렸다. 1월말 서울과 평창에서 열린 ‘국제인문포럼’도 그 중 하나였다. 공식 명칭은 좀 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계기 국제인문포럼’.

내가 포럼에 참석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포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기서 발표된 글 한 편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포럼에 참여했던 지인이 건네준 자료집에 실려 있던 것인데, 팔레스타인 작가 칼레드 흐롬(Khaled Hroub)의 글이다. 제목은 「이브라힘의 가자지구: 당당히 일어서서, 전쟁과 절망과 가난의 얼굴을 힘껏 때리다」였다.

흐롬은 팔레스타인의 장애인 투사 이브라힘 아부 투라야(Ibrahim Abu Thuraya)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것

을 팔레스타인인들 전체의 삶과 겹쳐놓았다. 장애인 이브라힘의 상처와 투내게 이 글은 반대 방향으로도 읽혔다. 즉 팔레스타인인들의 필사적 투쟁이 이브라힘을 통해 장애인들 일반의 투쟁으로 읽힌 것이다.

팔레스타인인 이브라힘은 중도 장애인이다. 2008년 12월 이스라엘군이 쏜 로켓 미사일에 두 다리를 잃었다. 스물한 살 때였다. 그가 두 다리를 잃던 날 가자지구에서는 일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브라힘 한 사람의 예외적인 비극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예외적 민족에게는 일상적 비극이었던 것이다.

비극은 2008년의 그 날에만 일어난 게 아니다. 2009년에도, 2012년에도, 2014년에도 비극은 계속 되었다. 2014년 한 해만 해도, 5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2,20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고, 천여 명의

신체 장애인들이 새로 생겨났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신적 손상은 따로 셀 수도 없었다.

비극의 시간은 2008년 뒤로만 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길다. 1920년대, 이 땅에 시온주의자들이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때부터 갈등이 생겼다. 당시 이곳을 식민통치하던 영국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하면서도 시온주의자들의 건국 움직임도 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시온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들였다. 그리고 즉시 정착촌을 만들어갔다.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지만 영국은 유대인들의 배타적 거주지 건설을 묵인했다.

영국이 물러가자 아랍의 군대와 유대인들의 군대가 충돌했다. 유대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곧바로 1948년 5월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일종의 인종청소였다.

이후로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주거지에서 밀려나 난민으로 떠돌았다. 그러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들의 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이 일어났다.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시나이반도, 골란고원을 점령했다. 원래 이곳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스라엘군은 돌아가지 않았다.

황당하게도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들에 유대인 정착촌을 지어내었다. 땅을 차지한 뒤 정착촌을 만들고, 이것을 영토로 편입하는, 초기 건국 과정에 있었던 일을 계속 반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거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들어갔다.

이브라힘이 사는 가자지구도 이스라엘 점령지이고 언

제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될지 모른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한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군이 언제든지 들이닥친다. 마치 포로수용소 같다.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수용자들이 자치 질서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는 곳 말이다.

실제로 이브라힘이 사는 가자지구의 하늘과 땅, 바다는 모두 봉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어부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정해놓은 수마일의 좁은 벨트 안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바다의 부표는 육지의 철책과 같다. 누구도 그 선을 넘을 수 없다. 평생을 착한 일만 하고 살아온 어부라고 할지라도, 그가 팔레스타인인 한에서는 이 감옥에서의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흐름의 말처럼 가자지구는 “지구상의 가장 큰 야외 수용소”.

이브라힘은 여기서 살아왔고 또 싸워왔다. 2008년 12월 다리를 잃었을 때 그의 철조망은 더 좁아졌다. 장애인인 그로서는 바다는커녕 난민촌도, 아니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웠다. 수개월을 그렇게 집구석에 처박혀 상처 입은 짐승으로 울부짖었다고 한다. 하지만 흐름의 가슴을 울리는 문장에 따르면, 그는 결국 “당당히 일어서서, 운명의 뱀을 때리고 고립으로부터 걸어 나갔다”.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늙은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말이었다. 가난했던 그는 철이 들면서 야채 장사를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부가 되었다. 어부였던 만큼 그는 바다에 둘러진 부표와 대면했고, 팔레스타인인이었던 만큼 그는 이스라엘군과 대면해야 했다. 그는 일했고, 그는 저항했다. 다시 “운명의 뱀을 때리며” 휠체어를 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일했고, 그는 저항했다.

이것은 한 장애인의 삶이지만 팔레스타인인의 삶이기도 했다. 그 둘 사이의 거리는 난민촌에서 바다 부표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된다. 이브라힘이 수개월을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했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수십 년을 가

자지구라는 큰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했다. 군대가 포위했고, 빈곤이 포위했고, 절망이 포위했고, 불의에 대한 ‘세계의 침묵’이 포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브라힘이 휠체어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군 앞에 섰듯이, 팔레스타인인은 수십 년의 봉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자기 운명의 뱀을 때렸다.

이제부터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봉쇄된 자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동할 수 없는 자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한마디로 장애인인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흐름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말해준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평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전쟁과 절망과 가난의 얼굴을 힘껏 때려야 하는 이들의 싸움, 소총과 돌맹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투쟁은 전투만큼이나 발명을 의미한다는 것. 투사는 적을 향해 군인처럼 돌진하지만 그 이전에 과학자처럼 실험하고 발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팔레스타인인들은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싸웠고 모든 것을 실험했다. 다음은 이들의 발명 목록이다.

먼저 재활용 기술. 봉쇄된 팔레스타인에서는 휘발유가 귀하고 비싸다. 팔레스타인 운전기사들은 식용유를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자동차를 개조했다. 전기 문제도 심각했다. 그러자 이들은 녹슨 발전기와 자동차 배터리를 개조해서 작은 버섯 모양의 전구들과 휴대폰을 충전하게 했다. 두 명의 공대생이 태양열로 움직이는 소형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썩어가는 나무, 음식물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기구도 만들었다. 또한 어떤 엔지니어들은 반입이 금지된 시멘트를 대신할 건축 자재를 발명해냈고, 한 어린 학생은 ‘열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를 발명해냈다. 또 어떤 대학생들은 혈압, 맥박, 체온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장치를 만들었다. 전기가 부족하고 가스가 부족하고 의료가

기가 부족한 곳에서, 살아가고 싸워가기 위한 필사의 발명품들이었다.

흐름은 장애인 투사 이브라힘의 삶과 투쟁을 이 모든 기술들이 떠받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브라힘은 식용유와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집과 시내를 오갔을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끓인 커피를 마셨을 것이며, 시멘트를 대체한 건축 자재로 파괴된 집을 보수했을 것이고, 열을 전기로 바꾸는 발명품으로 휴대폰을 충전했을 것이며, 어린 학생들의 발명품인 의료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셔갔을 것이다.

이 감동적인 발명의 리스트에서 나는 억압받는 자, 봉쇄된 자의 삶의 자세를 읽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든! 다시 말해 우리는 필사적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실험해야 하고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건전지를 실험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실험해야 하고, 흙을 실험해야 한다.

발명의 리스트가 어떻게 이런 물건들에만 머무르겠



는가. 우리는 연대를 발명해야 하고 투쟁을 발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실험하고 또 발명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싸워왔다. 손을 갖지 않았다고 물건 집을 것을 포기하는 장애인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입이 있으므로. 발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걷는 것을 포기하는 장애인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바퀴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연대를 실험해야 하고, 절망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서 투사를 실험하고 발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보고 가꾸는 주체로서 우리 자신을 실험하고 발명해야 한다.

흐름은 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언제나 이브라힘이었고 이것이 그의 사람들이었다"고. 나는 그가 글을 이렇게 마무리한 것이 좋았다. 나는 반대로 그의 글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끝내야겠지만 말이다.

사실 이브라힘은 지난 해 이스라엘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이스라엘군 저격수는 그의 머리를 겨냥해서 쏘았다. 이스라엘 신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군대의 조종사는 희생자의 몸의 아래 부분을 겨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쏘아 죽였다"고.

그런데 나는 분노를 부르는 이런 냉소에 어떤 의도

하지 않은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내게는 저 말이 이렇게 들린다. 이브라힘은 장애인 투사였기에 죽어야 했다. 장애인 투사에게는 다리, 즉 '살려줄 여지'가 없다. 달리 말하면 장애인의 투쟁에는 여지가 없다. 그만큼 필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필사적이어야 겨우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흐름의 마무리가 옳다. 이브라힘의 장애, 이브라힘의 죽음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다리를 잃었지만 이동했고, 그는 봉쇄되었지만 살아났고, 저격수의 총구가 머리를 겨냥했지만 투쟁했다. 그는 죽었지만, 살아 있을 때 이미 승리의 브이포즈를 취했던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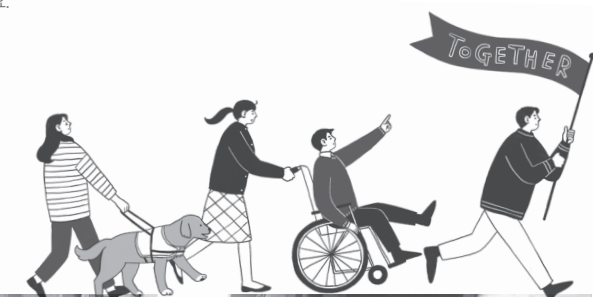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2018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박철균

2015년 4월부터 3년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작하자마자 420에 함께 했기 때문에 420은 참 남달라요. 문화제, 기자회견 MC 하는 거 좋아하고, 강의도 좋아하고 웹자보 만들거나 글 쓰는 것도 좋아해요.



1991년 4월 20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법정기념일로 장애인의 날이 지정된 이후,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꼭 4월 20일이 되면 장애인의 어려운 점들을 '체험'하는 행사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자는 이야기들이 잔뜩 나오죠. 마치 4월 20일이 한국의 300만 장애인의 생일이 된 것인 양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4월 20일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다시 4월 21일이 되면 어찌 얘기했던 장애인을 생각하자는 이야기들은 쑥 사라지고, 다시 장애인에게 냉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장애인은 시내 및 시외를 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제대로 된 자립생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뿐더러 자립생활이 아닌 시설에 갇혀 지내는 것이 '복지'라고 기만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운동은 매년 4월 20일에 '420장애인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결성해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2달에 걸쳐 투쟁을 하고 있습

니다. 365일 중 4월 20일 하루만 장애인을 생각한답시고 생색 내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장애인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운동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420마다 420공투단은 다양한 활동으로 일상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2015년 420 때는 비를 맞아가며 동대문 사거리를 막으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쳐대기도 했고, 2016년 420 때는 온갖 경찰의 횡방에 저항하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으로 행진하여 소녀상에 장애인운동의 상징인 '분홍종이배'를 달아 주며 함께 연대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열기와 함께 했던 2017년 420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열정적인 투쟁의 현장이었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장애인 차별 철폐의 목소리를 담은 낙서를 하고, 당시 광화문 사거리 앞 빌딩에서 고공농성하던 장기투쟁 사업장의 동지들을 위해 광화문 사거리를 막고 연대의 함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1박을 한 다음 광화문에

서 한강을 건너 여의도 주요 정당 사무실까지 20리 가까이 되는 길을 아침부터 행진하며 3대 적폐 정책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을 폐지하라고 목소리 외쳤습니다.

거리의 일상을 멈춰 서게 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그동안 동정과 시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욕을 할지 모릅니다. 십여 년 거리에서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싫든 좋든 이 세상은 장애인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무언의 메아리를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사회 제도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가 아닌 동등한 인간임을 조금씩 조금씩 인식을 변화시켜 나갔죠. 그러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420이든 아니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도 420공투단은 움직입니다. 2015년 UN 총회의 기본 정신인 "Leave NO ONE Behind" 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기본 슬로건으로 하고 3.3.7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2018년 420공투단은 또 뜨겁게 이 사회에서 목소

리 외칠 것입니다. 3월 26일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에서 그리고 4월 19일-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시청과 청와대 등 서울 곳곳에서 울려 퍼지겠죠. 5월 1일 해산식 이후에도 지방선거 때까지 420 때 외쳤던 목소리는 끊임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장애인의 권리를 4월 20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일상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투쟁은 이 사회를 차별 없는 사회로 계속 변화시킬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빈민, 홀리스, 성소수자, 청소년 등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장애인운동은 420공동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한 해의 장애인운동의 절정인 420 투쟁이 펼쳐지는 2018년 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요!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운동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3대 목표

- ① 중세 없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 세금을 올리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 ②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삶을 보장하라.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지 마십시오.
- ③ 결국 예산의 분배 문제.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만났시다.

3대 적폐 폐지 요구안

- ① 장애인수용시설 폐쇄하라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일명, 꽃동네 폐쇄법) 제정하라.
- ②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 폐지(廢紙)가 아니라 폐지(廢止)하라.
- 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에서도 폐지하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7가지 요구안

- ① 중증장애인노동권을 보장하라.
- ② 장애인활동보조권리 보장하라.
- ③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
- ④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라.
- ⑤ 장애인문화예술체육의 권리를 보장하라.
- ⑥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켜라.
- ⑦ 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제 진짜 승리하는 한판의 투쟁을 준비합니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고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지난 2월8일 검사가 구형한 2년6개월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최종선고를 앞두고 연기되었음.
현재는 새로운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저는 박경석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앞에 동지들에게 소개된 정태수, 박흥수 열사를 88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만났습
니다.

저는 83년에 교회 가라는 엄마 말 듣지 않고 주일날
토함산에서 행글라이딩 타다가 추락하여 척수가 마비된
장애 최고등급인 1급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니가 엄마 말 듣지 않고 장애인
이 되었으면서, 어디 가서 너무 까불지 말라”라고 하십
니다.

저는 죽기 위해 오년간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죽지
못해 88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갔습니다. 그 당시 나
는 직업훈련 받고 취직해서 첫 봉급을 우리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던 정말 착하게 살고 싶었던 장애인이었습
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줄을 잘 서야 한다고요. 저
는 줄을 잘 서기 위해 복지관에서 선생님 말 정말 잘 들
었습니다. 내 동기 정태수가 데모를 일부러 조직하기 위
해 국민체조를 못하게 하려고 훈련생을 꼬시는 나쁜 짓
을 알아채고 선생님에게 고발했던 정말 정의로운 합법
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무엇인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한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줄을 잘못 서게 되었습니다. 태수와 흥수형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나는 대화와 행동은 현대적 용
어로 동료상담 정도이었겠죠.



정말 힘 있는 동료상담은 내가 왜 지역사회에서 「분
리·제한·거부·배제」 되어 차별받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고,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공간에 함께 하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최정환 열사의 시신이 탈취되는 연세대학교 장례식
장 그곳에서 저는 경찰들의 최루탄에 두려움을 느꼈습
니다. 그리고 그만큼 분노를 알았습니다. 이덕인 열사가
안치되었던 인천 길병원 영안실 벽이 백골단의 해머에
깨져나갔던 그 현장에서 저는 절망했고 무기력함을 뼈
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는 오기도 함
께 배웠습니다.

나의 동지. 최옥란, 정태수, 그리고 사랑하는 형 흥수
형을 2002년 이등권투쟁 한가운데 보내야했습니다.

추운 겨울 우동민 열사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국가인권위가 우동민 열사의 죽
음에 사과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가인권위 건
물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인권
위원회 건물 화장실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 투쟁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운동의 힘은 바로 투쟁하는 대중들의 물리력입
니다. 바로 여기 청와대 입구에서 함께 있는 동지들입니
다. 그것이 태수와 흥수형이 내게 가르쳐준 진실이고 선
물입니다. 그 진실과 선물을 두고 나는 이 투쟁 현장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1,842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수용시설 폐지
를 위한 광화문지하차도 투쟁에서 김주영, 지우·지훈 파
주어린남매, 송국현, 그리고, 그리고.. 박흥구, 박종필까

지 떠나보냈습니다.

85일의 중증장애인노동권 점거농성 투쟁하면서, 1990년 당시 태수와 흥수형이 집회 간다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집회에서 괜히 앞에 있다가 경찰들에게 군화발로 짓밟혔던 생각이 났습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투쟁의 노동권이 2018년 중증장애인 노동권으로 연결된 투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을 차별하는 근본적인 모순에 좀 더 다가간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투쟁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제가 저 하늘나라 가서 태수와 흥수형에게 전하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대들 때문에 개고생 했지만, 장애인이 되어 인생 망친 줄 알았는데 한평생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줄을 잘 세워줘서 고맙다는 말도 함께 하렵니다.

그 자랑스런 투쟁, 피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지요. 동지들, 저는 참 힘들어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와 중증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이 사회와 권력 앞에 굴종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앞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이제 진짜 승리하는 한판의 투쟁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무엇이든지, 저에게 그것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동지들.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2018.3.26.

청와대 앞 최옥란 열사 16주기 및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에서 박경석

(추모제 현장 발언을 지면에 옮겼습니다_편집자 주)

마주보지 않아도 손 잡지 않아도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장선정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이 글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누구와도 상의하거나 허락받지 않았으며 모두 맞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데다 이렇다 할 결론마저 없을 수 있어요.

워낙은, 노란들판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글이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생일날 휴가를 준다던가 일상적으로 탄력근무제를 한다던가, 쉬는 것에 후한 편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실제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적어볼까도 생각했었지만 최근에 저는 구성원들의 고민의 본질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노란들판은 팀장과 팀원의 두 가지 직급만 존재하고 다른 위계제도가 없어요. 창립멤버를 포함해 대부분 경력력이 높은 직원들이 팀장을 맡아서 업무별로 인원을 나눠 운용하고 있고, 회의와 휴가 등도 팀별로 상의해서 치우침이 없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수막으로 시작해서 인쇄물과 디자인과 출판, 그리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경

력직 디자이너들의 채용이 필요했고 자체적으로 성장한 디자이너를 포함해 총 21명의 근로자중 8명이 디자이너 2-3명의 인원이 다른 업무와 디자인을 병행하고 있으니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출력과 마감을 하는 직원이 3명, 상담접수와 업무진행, 회계와 인사노무, 대외업무를 맡은 직원이 나머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법인 노들’의 다른 단위들에서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을 대할 때 남인 듯 남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이 웃인 건지 형제인 건지 혼란스러워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쌍방 간에 사실일 것이예요.

어찌되었든 성북구에 있는 ‘노란들판’은 지난 2-3년간 15억 이상의 연매출을 내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의 형태로 꾸준히 업무량을 늘려가고 있고,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추가채용의 기로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해도 된다면 이 글은 장애인의 노동



권도, '활동가로 살기로 결의한 자'에 대해서도 통과했어요. 다만, 총 21명의 근로자 중 현재 8명이 장애인근로자라는 것만 말씀 드릴게요.

주식회사처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의 대부분을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우리 사장님은 월급도 안 받아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일에도 투여되는 인력의 수가 많고 지켜야 할 공정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란들판의 급여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또 직급제도라고 해 봐야 모든 사안을 전체회의로 결정하기가 불가능해 팀장 정도가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승진이 없다고 봐야 하죠. 게다가 분명 회사로 알고 들어왔는데 업무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꽤나 많고 그나마 고유 업무도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져야 할 영역이 하염없이 넓고도 깊은 것이예요.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노동의 공동체로 출발했지만 기업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력운용의 형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개별의 하나 하나는 마땅하고 당연하게 본인의 생계와 인생에 대한 진지함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죠.

'노란들판'의 어느 분들은 가뜰이나 하루하루 일도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중에 이 곳은 기업인가 기업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곳은 공동체인 건가? 나는 그렇게까지 밀접한 조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다시 그렇다면 이 곳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해 대놓고 표현할 수도 없는 쓸쓸

한 퇴근을 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결국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결국 소용없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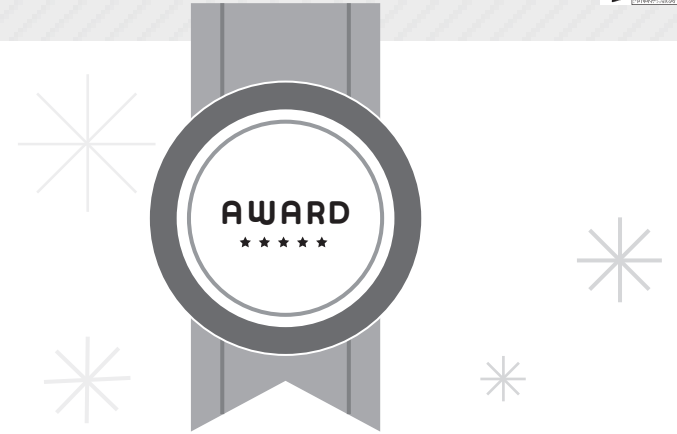
저는 다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답게) 마주보지 않아도 된다. 꼭 (따뜻하게) 손잡지 않아도 좋다. (결연하게) 결심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맨 앞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이에요.)

저는 노란들판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인생의 어느 날과 어느 순간을 가능한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대체로 본인의 선택으로 존재하고 움직였다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래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힘이 들면 땡땡이를 칠 수도 있지만 어떤 당위가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풍경처럼 공기처럼 딱히 무슨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없으면 어색한 밥 한 공기처럼 편안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
너에게 사랑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사랑했으니까.

좋은 봄날 되세요. ^^



2017년 노란들판 모두의 시상식

노란들판(공장)에서는 2017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모두의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상식은 뛰어난 성과(?)를 보인 몇몇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보다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역할을 돌아보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24개부분의 상들이 준비되었고, 신입직원을 포함한 20여명의 모든 직원에게 상들이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상품 또한 일률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각각의 수상자에게 어울리는 맞춤형 상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큰상은 아니었지만 상을 받은 모두가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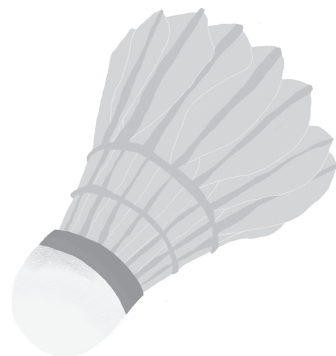
크지는 않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지켜가며, 더디더라도 함께 일해 나가는, 모두를 위한 들판이 되도록 노란들판은 노력하겠습니다.

어둠의 조직, 노란들판 [배부] 이야기



송주훈

노란들판에서 작업팀 막내와 남자 막내를 담당. 아내와 반려견을 위해 사는 남자. 스쿠터와 축구, 술과 일본요리를 사랑한다



2017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연일 한파 뉴스가 계속되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으며 심지어 추위로 유명한 러시아보다 더 기온이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하니 말 다 했지요.

하지만 3월이 되니 언제 그렇게 추웠냐는 듯이 영상 기온까지 올랐고 낮에는 다시금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날씨를 기다린 노란들판 공장의 한 모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란들판 공장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 및 인권 등을 고민하는 '마중물' 여성의 노동 및 인권, 화합 등을 고민하는 '여기모여' 노란들판의 내부 이야기와 활동을 담고 있는 '블로그단' 수화 연습을 위해 모이는 '수화 모임' 등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모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의 주인공인 '배드민턴 부' 통칭 [배부]라는 모임입니다. 비공식적이며, 사적이며, 어둠의 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점심 식사 후 주변 공터에서 눈치 보면서 배드민턴을 치는 모임입니다.

2018년은 3월 5일에 다시 어둠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히 몸을 풀고 아무지게 배드민턴 채를 휘둘러봅니다. 비록 정식으로 배운 사람도 없고 룰도 엉망진창이만 이렇게 30~40분정도 하다보면 어느새 땀이 흥뻑 납니다. 셔틀콕을 서로에게 보내면서 엉망인 자신들의 모습에 웃음도 나고 그러다 보면 배가 아파서 진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어쩌면 운동이라기보다 웃음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땀 흘린 후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은 땅

따먹기나 공기놀이를 하고, 모여서 수도도 떨고. 이름만 '배드민턴 부'지 이것저것 하고 있었네요.

하루 종일 사무실 안에서 일하면서 잊고 있었던 어릴적 추억과 고민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점심시간만은 바람이 한 점 없는 맑은 날이기를 바랍니다.



2018년 노들야학 학생회장단입니다!



회장 이상우

안녕하세요. 저는 2018 노란들판 노들 야학 총학생회 회장 이상우입니다. 총학생회 회장선거 공약한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 총학생회 회장에 임하는 각오

노란들판 노들 야학 학생들과 교사들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회장 최영은

안녕하세요 올해 부회장이 된 최영은입니다. 학생들이 저희를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목표와 계획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부회장이 되겠습니다. 학생들끼리 차별을 받거나 혹은 성적차별을 하거나, 장애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한 경우 저희가 상담과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학생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학생 부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들아 안녕

'우리들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박태수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수입니다.

나이는 55살이고 사는 집은 이곳 노들과 가까운 명륜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노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벌써 1년 하고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에 우연히 종로구청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알게 되어 구직신청을 하고 선정되어 2017년 1월 첫 날부터 노들에 배정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군요. 벌써 1년 2개월이 더 지났으니까요.

처음 출근하던 날 전날 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날 밤에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그 때까지 저는 오랫동안

병원 생활만 했었고 퇴원 후에도 줄곧 오랫동안 집에서만 생활해 와서 사회와 격리되어 왔기에 오랜만에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고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어 밤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출근 첫날 노들센터 분들과의 첫 만남이 잘 이루어졌고, 이후 이곳 노들의 모든 분들과 주위 분들의 덕택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넘게 지나고 보니 이제는 이곳 노들 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자주 왕래하는 관련 활동가분들과 활동보조인 선생님들, 야학 학생 분들까지 거의 모든 분들과 안면이 있게 되었습니다.

노들에서 제가 하는 일은 노들 2층 야학, 4

층 활동보조인 교육팀, 6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노들 전체를 총괄해서 업무보조, 정리정돈, 환경미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다 보니 그냥 집에 있을 때보다 시간도 빨리 가고 의욕도 생기고 활력도 생겨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데 규칙적으로 운동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여러모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난생 처음으로 대학로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하는 시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기가 아주 더 힘들어져서 실의와 좌절에 빠진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

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잘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이야 말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일생일대에 아주 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꼭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시라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저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하고 있다고 믿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 세상』이 오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 4층 일자리사업 박태수

노들아 안녕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수미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에 살다가 작년에 11월 28일 체험홈에 입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노들야학은 기사도 보고 인권활동 하시는 분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자립해서 사회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다짐합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파이팅



노들아 안녕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



≡≡≡ 꺾남희

저는 27살이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옹호 활동가로 일하는 꺾남희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희 가족은 3가족입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 인천 해광학교와 서울맹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는 명지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과와 사회복지 연계전공을 공부하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참우리라는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교육봉사동아리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조모임 첫 회장을 하였고 지금도 그 모임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청년드림팀 활동을 하였고 현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종로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자조모임에서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일부 활동은 권익옹호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기획이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일을 원했습니다. 마침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각장애인 쪽 권익옹호가 잘 안 되어있다는 것을 느꼈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들에서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들아 안녕

노들을 다시 배운다



≡≡≡ 천성호

노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년 전쯤에 2년 동안 노들에서 자원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국어와 사회수업을 했습니다.

노들에 없는 동안에는 전국야학협의회에서 야학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교사교육을 맡는 일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교육학 공부도 했고요. 비장애인 야학에서 활동을 했는데, 야학에 몸을 담은 지 24년 정도 되었네요. 인생의 반을 야학에서 보냈네요. 야학이 무슨 운명처럼, 바람처럼 이곳을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야학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야학에서 상근활동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낚수업과 교육부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전에 해선 샘의 업무를 넘겨받았는데, 샘이 워낙 꼼꼼하게 일을 잘하셔서.. 저녁에 청솔1반 국어를 맡고 있어요. 문해교육을 꽤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했는데도 여전히 장애인들에 맞는 특히, 발달장애인에 맞는 문해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브라질의 민중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가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망명생활을 마치고 사랑하는 브라질로 다시 귀국하면서 한 첫 말은 "브라질을 다시 배운다."라고 했는데, 저도 새롭게 상근 활동을 하면서, "노들을 다시 배운다."라고 하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교 단 일 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조모임을 찾아서...

- 발달장애인자조모임 -

☞ 임당

노들야학 교사, 고민이 늘 치열할
수만은 없어서 약간의 방전된 시기를
받아들이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의 권리를 주장하는 진정한 자조모임은 어
떻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조모임을 운영한 2017년 봄학기를
끝내고 작성한 평가서에서 나는 위와 같이 썼다.
“진정한”에 강조 표시를 해야 할 것 같다. 의미 있
는 자조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표가 나를 짓
누르고 있었다. 중요한 활동, 의미 있는 자조모임
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과 모여 보니 저 목표는
당최 적합하지 않은 목표였다. 만들고자 했던 ‘당

사자-조력자’ 관계보다는 익숙한 ‘교사-학생’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로간의 소통보다
나를 통한 소통이 우선시 되었다. 모든 말은 나에
게서 시작되어 학생들에게로 흘러갔고, 학생들의
말은 나를 거쳐서만 다른 학생들에게 흘러 들어갔
다. 게다가 학생들은 이 모임 자체를 편안하게 느
끼지 않았다. 수업의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수업이라는 형식과 학생-
교사라는 위계를 없애고, 당사자들이 자조 모임을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 서로 간에 끈끈하게 엮인
유대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답답하던 차에, 발달장애인활동을 만들

어가고 있는 ‘피플퍼스트서울센터(이하 ‘피플센
터)’의 활동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피
플센터는 우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했다. 첫 회의 때 반년 간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모임 계획에서는 투
쟁 장소를 연대 방문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모여서 친목을 우선 쌓는 나들이 개념의
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발달장애인 조력자교육에서 들었던 강사분의
코멘트도 생각이 났다. 초반의 자조모임이 너무
의미 있는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
고, 당사자 간의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것. 나는 ‘놀면 안 된다’는 초반의 생각
을 고쳐먹고, 당사자들이 조금씩 돈을 내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의 활동들을 회의 주제 삼
아 이야기 해 보기 시작했다. 2017년 가을학기의
일이었다.

학기 초반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만 하고
막상 활동 실행은 미루게 되었다. 그 실행의 무게
가 오롯이 나에게만 쏠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
문이다. 막상 활동을 시작해 보니, 나도 모임에 참
가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몇몇 활동들은
나에게 “일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 부담
이라는 것도 돌이켜보면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시간 내에 목표한 활동을 정확하게 시작해 정확하
게 마쳐야 한다는 나의 강박에서 비롯되었다는 스

스로의 평가가 남았다.

그 과정에서 정말 좋았던 경험이 있었다. 당사
자들과 다 같이 광장시장에 부침개와 막걸리를 먹
으러 간 날이었다. 부침개와 막걸리를 흡입하고
광장시장 구경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
이 되었을 때 나는 또 고민을 시작했다. 낯선 종로
5가에서 집에 혼자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혼자 가실 수 없는 분들과 동행해야겠다고 생각했
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 미리 다음 일정
을 미뤄 놓기까지 해 두었다. 나는 이제 술집 집
으로 가야 한다고, 여기는 종로 5가이고, 1호선 지
하철을 탈 수 있다고 공지를 했다.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와 함께
집을 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누
가 누구를 흔쾌히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했고, 누
가 누구와 같이 가면 집까지 가는 5호선으로 잘
갈아탈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도 원래의 다
음 일정에 맞는 방향으로 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진행되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사람 2명을 바래다주기로 한 사람
이 뒤에 남은 우리에게 너무 열렬히 작별 인사를
하던 나머지, 바래다줘야 하는 두 사람만을 태운
채 지하철 문이 닫혀 버린 것이다. 순간 아찔했다.
먼저 탄 2명에게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급히 전화

한 후 황급히 뒤 따라 가서 결국 일행은 다시 뭉칠 수 있었다. 즐거운 해프닝이었고, 결국 집에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재미있었고 좋았던 건,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 내 움직였다는 점이었다. 비록 한 번의 작은 사건이었고, 그 뒤로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무관심한 태도도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이 한 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사자들 안에서 자조모임의 의미가 싹트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작은 싹들이 조금씩 더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느슨하고 느리게 모임을 지속하면서 또 어떤 순간들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려 한다.

초반의 자조모임이
너무 의미 있는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당사자 간의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COFFEE
COFFEE
COFFEE
COFFEE



인포숍카페별골로 놀러오세요-!

유선
인포숍카페별골 매니저



안녕하세요! 인포숍카페별꼴이 월곡동 새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라고 적어놓고 보니 이 공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들바람>에 원고를 너무 오랜만에 쓰는 탓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포숍카페별꼴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인포숍카페별꼴은 장애인문화예술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카페 겸 인포숍입니다. 처음에는 노들야학의 ☆김명학 바리스타☆를 포함한 6인의 매니저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3명의 매니저와 여러 친구들(?)이 함께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휠체어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고, 조금 좁지만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성중립화장실이 있습니다.(안에 세면대가 있고 단독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리컵 씻기에도 좋아요 ^^)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인 할인도 적용하고 있어요. 주문하면서 장애인 할인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음료가 천원 할인됩니다.

이 공간은 커피와 음료를 파는 카페이기도 하면서, 여러 정보를 공유/생산하는 인포숍(Infoshop)이기도 해요. 저희는 특히 여러 사회운동(특히 소수자 운동)에 관련된 책과 진(zine), 찌라시 등을 모아두고 있어요. 오시면 언제든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시러 온 동네 주민들이 <노들바람>이나 전장연 책자를 읽고 가기도 하고요. 가끔 페미니즘이나 lgbt, 장애인 운동 관련 자료를 싫어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별꼴은 계속 이런 감각과 취향을 유지하며 그냥 있어왔고 있으려고 합니다(ㅋㅋ).

또 별꼴은 매년 진 만들기 워크숍을 열고 그 결과물을 전시/아카이빙 하기도 해요. 워크숍을 연 첫 해에는 종이로 만든 진을, 두번째 해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여러 소리-진을, 세번째 해에는 와이파이 신호로 송신하는 와이파이-진을 만들고 전시했었어요. 노들야학 진 만들기 수업과도 연계해 같이 전시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워크숍을 해오다보니 지금 공간 한켠에 정말 이상하고 거대한 진 도서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별꼴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독립 다큐멘터리나 영화 상영, 음감회, 전시, 세미나, 일일 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요. 가장 최근에 열렸던 행사는 (과거 로사이드에서도 활동했던)최선영 작가의 '라운드 라운드 그라운드' 앨범 음감회였어요. 최선영 작가는 결혼해 아들을 키우면서 유기견 네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매일 밤 모두가 잠들어있을 때 만들고 녹음한 노래로 벌써 10 앨범을 두 개나 냈어요. 두 번째 앨범 출시 기념 음감회에는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와보았던' 대학생 두 명과 별꼴 단골손님들, 친구들, 그리고 로



사이드 작가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미러볼이 현란하게 돌아가는 실내에서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영 작가의 음악을 듣고 힘껏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비건 채식 음식을 나누어 먹었죠. 생각해보면 항상 별꼴에서 했던 행사는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모자라거나 허술하거나 이상해보여도 그냥 이대로 괜찮은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고 응원해준다는 느낌. 별꼴에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혼자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손님도 있고, 동성처럼 보이지만 손을 꼭 붙들고 데이트하러 오는 손님도 있고, 휠체어 타고 책 읽으러 오는 손님도 있고, 크로스 드레서나 트랜스 젠더처럼 보이는 손님도 있고... 매니저들과는 한 마디 나눠본 적 없지만 몇 년째 계속해서 (아마도 멀리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 이 공간에서는 차 한 잔 마시는 동안에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서로를 하나의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무언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음료가 정말 맛있답니다. (ㅎㅎ) 공간도 꽤 멋지고요. 멀리서 한번쯤 브라우니 먹으러 찾아올 만도 하다고 매니저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포숍카페별꼴에 놀러오세요~!



☕ 카페 위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7-130 1층
(6호선 월곡역)

☕ 카페로 열려있는 시간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후1시-9시
(마지막 주문 8시 30분)

☕
카페 메뉴는 모두 비건으로 바꿔서 가능합니다!
비건이시면 매니저에게 말씀해주세요.

☕
문의사항이나 행사 일정은 다음 연락처들을 참고해주세요~!
* 페이스북 @infoshopbyulkkol
* 인스타그램 @infoshop_cafe_byulkkol
* 이메일 terrapin27@gmail.com

장애인문화예술판이 또 이사했어요~

#대체 몇 번째 이사



주은아

장애인문화예술판이 '장애인극단판'이던 시절부터 만나, 극단에 필요한 일들과 '배우'를 하며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데 잘 못 먹고, 우는 거 싫어하는데 잘 울지요.

〈노들바람〉에 참 오랜만에 나타났지요...? 장애인문화예술판(이하 '문예판')입니다~ 헤헛

한 해가 바뀌고 한 계절을 보내는 동안, 문예판은 이사를 하고, 단원 식구(배우님들)가 더 늘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공연을 코앞에 두고 한창 연습하는 도중에 막 짐을 싸고, 막 짐을 옮겼습니다. 단 하루만예요. 서울시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가까운

곳, 동소문로20다길 10번지 세창빌딩 5층입니다. 세창빌딩 3층에는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교가 있고요, 4층에는 성북마을극장, 그리고 5층에는요, 한 쪽 벽면에 거울을 붙여 놓은 연습실+너른마당 사무실+문예판 사무실이 딱~!하니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사기 전에는 이곳에 오래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아니 일부러라도 놀러 오신다면 정말 대환영입니다.



희망의 자립하우스 in 종로구

송정규

안녕하세요 노들센터 자립생활주택 담당 활동가 정규예요. 우리 자립생활주택이... 드디어!!! 종로구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상운, 인성, 장기 세 분과 정규의 이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당

2018년 2월27일, 이 날은 노들센터 자립의 거점인 자립생활주택의 영토를 천도하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들고 어렵게 이사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주택에 직접 거주를 할 누구는 기대에 부풀어 미리 새로운 도읍을 찾아가 보고 주변을 조사하는 방면 또 다른 누구는 이사하기 몇 주 전부터 노들센터에게 이사는 왜 하는 것이며 나는 지금 사는 곳이 좋다 이사를 안했으면 한다는 하소연을 이사를 하는 그 날(사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네요...)까지...후...아무튼 이사는 순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고 우린 종로구에서 모두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로구로 영토를 천도한 지 3주 정도 지났고 우리 주택 형님들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종로구 소재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가며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살기 좋은 집을 알아봐주신
우리 조성남(전 노들센터 사무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종로구로 이사를 와서 3주 정도 생활을 해봤는데 맘에 드시나요?

상운 노들야학에 가는 길이 가까워져서 좋아요. 그런데 인도에 막 차를 세워둬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가게 되는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정규 형 말이 맞아요. 인도에 세워진 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죠. 그럼 이거 형이 종로구청이나 혜화동 주민센터에 가서 말 좀 해주세요.

상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장기 근데 야학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많이 걸어가야 되고 걸어가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근데 여기가 수유시장보다 좋아요, 저기 잔디밭에서 짜장면도 먹고 재미있어요.

정규 짜장면? 이사 와서 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인성 아 토요일에 성균관대학교 잔디밭에서 짜장면 먹었어요.

진수 오~ 짜장면 인성이형도 강북구에서 종로구로 오니까 좋아요?

인성 아 그래도...! 사는 게 불편해요, 강북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상운 못 가! 형 이사 왔으면 여기서 살아야 돼.

인성 흠... 아 그래두...

노들센터와 가까워진 만큼 노들센터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 잘 참여 좀 해주세요.

상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정규 형은 대답하기 곤란하면 맨날 웃기만 하시네?

장기 근데 나는 보치아가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커피 만드는 거랑 모자 선생님이랑 공원에도 올라갔다왔고 임당 선생님이랑 노래방이나 한 번 갔으면 좋겠는데.

인성 보치아는 꼭 가야 되는 거야?, 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종로구로 이사 온 김에 우리 형님들의 새로운 각오가 듣고 싶어요.

장기 나는 저기 형수님 집에 한 번 다녀오고 싶은데... 승원이 엄마도 만나고 싶고 또랑에 발 담그고 싶어서, 근데 활보선생님도 데려가도 되나? 지영이는 같이 가도 돼?

인성 추석 전에 엄마 산소에 다녀오고 싶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긴 한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핸드폰도 바꾸고 싶긴 한데 쓰기 불편할 것 같아 못 바꿔요.

상운 올해 안에 꼭 자립을 할 것이예요. LH즉시지원 전세대출도 신청을 했고,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도 신청을 했어요. 꼭 자립생활주택을 나갈 것이예요.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자립생활주택이 종로구로 이사를 왔어요. 주택만 이사를 왔을 뿐 형들은 더 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나의 탈시설기 당신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세요!



정소영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권익옹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소영입니다. 뭐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어....

나는 20여 년간 성남에 위치한 소망재활원이라
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역
사회로 나와 자립을 시작했다.

내생애 첫 전입신고일~! 2015년 3월 2일!! 이
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우선 내가 시설에 들
어가게 된 계기와 생활을 짚막하게 이야기하자면
4살 무렵 길에서 발견되어 성남시의 의뢰로 시설
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들어가게 된 시설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생
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
도 있었다.

시설 안에서 나는 나름 많은 사회복지사의 도움
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런
데.. 초등학교 4~5학년 때 짬 한 사회복지사 선생
님께서 내가 이 재활원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
다른 식구들보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뛰어나 보
이지만 이 다음에 커서 사회에 나가보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말
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나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반항심으로 뭐든 주어진 것에 나 나

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
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일반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특수학교를 진학
하게 되었다. 나는 일반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그
당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반항으로 단
식투쟁에 들어갔다. 일주일 정도 울면서 일반학
교에 보내달라며 단식투쟁을 했지만 내 힘으로
역부족이었던 걸까? 난 환경과의 타협을 하면서
특수학교에 입학했고 마음을 다잡았다. 공부는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던 중 특수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학제의를 받
았다. 내가 전학갈 곳도 특수학교이긴 하지만 일
반교과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서 공부를 하기엔
훨씬 수월할 것이란 말에 난 고민 없이 전학을 가
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전학 갈 학교가 재활원
에서 꽤 먼 곳이라서 전학을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나는 덜컥 겁부터 났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많은 고민 끝에
전학을 가기로 하고 이것저것 짐을 챙겨 전학 갈
학교로 갔다.

내 생애에서 처음 재활원을 떠나 중, 고등학교 6
년이란 시간을 머물렀던 기숙사.. 여기서 나는 정
말 많은 경험과 성장을 하게 되었던 같다.

‘사회로 나가보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 될 거야’라는 말의 뜻을 나는 이 학교에 온 지
반년 만에 알게 되었고.. 아 그동안 나는 정말 무

물 안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
다.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처음으
로 원망하기도 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
애인 생활시설에 들어간 것에 대해 왜 그래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아 난 그동안 마루타처
럼 살았구나,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수많은
생각과 방향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끝없이
방황을 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학업은 뒤로 미루게
되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을 하던 중 어느새
나는 고2가 되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좋
은 담임을 만나 정신 차리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
학할 수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나는 학업도 중요했지만 대
학을 졸업한 이후에 재활원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기에 학내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
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
기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학내 학생지원팀을 찾
아가 상담을 했고, 학기 중에는 입학과 동시에 만
들어진 장애학생지원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
하고 방학 중에는 외부 기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대학생활을 하던 중에도 나는 생활시설 소속이
었기 때문에 내 통장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지 사회복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난 그게 죽기보다도 싫어서 시설에
서 관리하는 통장과 별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돈

을 모으기 시작했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 시설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들어오는 대로 그냥 막 썼다. 계획 없이 돈을 막 쓴다는 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난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나는 넌 우물 안 개구리야! 넌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어서 학업보단 학교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부분 지원을 했다. 결과가 언제나 좋을 순 없었지만.. 될 때까지 했다.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 너 이 성적 가지고 공부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라고....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 4학년 마지막 학기가 되었고, 먼저 자립한 언니, 오빠 그리고 성남에 위치한 센터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후에 시설에 나 이렇게 집도 구했고 돈도 이만큼 모아두었으니 난 나가겠다! 라고 통보하듯이 말을 했고 아직도 그 놀라던 표정들이 잊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나는 자립에 성공했다. 가끔 아주 가끔 혼자 모든 것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게 서럽지만 그래도 난 나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는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언제나 내 삶은 ing!!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너무 많은 차별들이 보이더라고요



김훈

일을 찾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활동보조란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이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이용자와 매칭이 돼서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날엔 많이 떨렸습니다.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일을 잘못하면 어쩌지?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내 모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지네요^^.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서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걱정해주는 경험들은 정에 목말라 했던 내게 있어서 이 일을 선택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함께 하는 날들이 쌓여감에 따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사회는 비장애인 위주였고 장애인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턱으로 막혀 있는 수많은 식당들.... 본인이 싸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카드를 만들 수 없었던 일... 투표를 할 때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 항의 했던 일들.. 너무 많은 차별들이 일을 하다 보니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통해 사회가 조금씩 바뀌는 것에 함께 기뻐했었고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활동보조 일을 하러 출근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느 한 사람의 일과에 꼭 필요한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요.

뽀글뽀글 활보 상담소

활동보조인과 노동권, 그리고

서기현

어머니의 태몽에서 백사로 분해
치맛속(?)으로 들어가 태어나서 그런지
입만 살아있고 팔다리느 못 씹.
역시나 뽀글뽀글 음흉하고 똑똑하여
이간질을 잘함. 그래서 솔로 ㅠㅠ
천운으로 센터판 소장으로서 들어와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지만 글썩...

일반적으로 노동자라면 일한 만큼 급여를 받거나 쉼을 가져야하지만, 활동보조인은 그러하지 못하다. 언뜻 생각하면 활동보조인은 일한 만큼 바꾸처를 결제하고 그것의 75% 이상을 가져가니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와 각종 법정 수당이다.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그 해의 물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그 금액만큼은 급여로 보장하라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시급으로 정해지며 그것에 따라 일급, 월급의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에는 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급이나 일급에 비해 월급은 계산상으로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월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은 4.34주(365일÷12개월÷7일)이다. 즉, 주 40시간 일 한다고 하면 월급은 약 130만7208원(4.34주×40시간×7530원)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26만6562원 많은 157만3770원을 받아야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바로 법정 수당의 하나인 '주휴 수당' 때문이다.

주휴 수당은 노동자가 주 5일 만근을 했을 경우 1일치의 일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급여의 5분의 1을 더 받는 것이다.

또한 야간(22시~다음날 6시)에 일할 경우에는 0.5배의 급여를 더 받아

야하며 법정 공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포함)에 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를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이라 부른다. 그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도 0.5배의 급여를 더 받아야한다. 이를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 야간, 휴일, 연장 수당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5배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4가지의 법정 수당을 활동보조인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이다. 왜냐하면 현재 시간당 바꾸처 단가(10,760원)의 75%(8,070원)가 최저시급(7,530원)을 넘는다 해도 공장 주휴 수당을 지급하면 바꾸처 단가의 75%는 이미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야간, 휴일 시간대는 바꾸처 결제도 1.5배로 이루어지지만 그나마 최대 8시간밖에 적용이 안 되며 (야간은 어차피 시간대 자체가 8시간이 최대라고 그렇다 쳐도 휴일은.....) 중복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요일 22시~24시에는 야간, 휴일이 겹치게 되는데 바꾸처 결제는 2배가 아닌 1.5배로 결제가 된다.

그리고 법정 수당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연차

바라건대,
활동보조인들이 노동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그 날이
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서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대표로서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미사용 수당이다. 흔히 연차 수당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활동보조인의 휴가와 관련이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업무특성상 휴가는 곧 시급을 벌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은 휴가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일반기업의 노동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연차가 발생이 되고, 그 발생된 연차가 사용되도록 독려를 받지만, 만약 그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 또는 연초에 수당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이 적자를 감내하지 않는 이상 지급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법적인 수당으로써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별로 연차휴가가 부여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서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연차를 안 쓴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이 수당도 역시 주휴수당처럼 일급으로 계산된다. 원래는 연 단위로 지급해야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업무특성상 매 월 나누어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5개의 법정 수당 때문에 급여 자체의 지급도

어렵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뜻한다. 이 보험들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나누어내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급여와는 별도의 금액이다. 어림잡아 활동보조인 급여의 7%의 정도의 금액이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된다.

퇴직적립금은 활동보조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을 하는 돈이다. 매달 활동보조인의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금액으로 적립을 하게 된다. 약 8.3%이다. 그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활동보조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모아놓은 퇴직적립금에서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은 활동지원기관이 갖고 있는 돈이지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돈이어서 그 기관의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지원 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활동보조인을 가입시

키고 해당하는 사업자부담금을 내야하며 퇴직적립금도 빠짐없이 적립하라고 활동지원사업 지침에 적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최저임금이 2018년도 기준으로 16.4%가 올랐다. 다행스럽게도 바우처 단가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긴 했지만, 애초에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 사업에서는 바우처 단가 금액으로 법정 수당,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총당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바우처 단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활동보조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활동지원기관들은 잠재적인 불법행위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정부 관계자들도 파악을 했는지 활동지원사업을 비롯한 바우처사업 기관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게 된다. 그 내용은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는 활동보조인 기준 한 명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다. 꼭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했던 것도 환수한다고 엄포를 내렸던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1인당 13만원이면 5가지의 수당과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그리고 퇴직적립금 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법정 수당을 100% 지급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에서 모의계산을 해본 결과, 각 기관 당 수 백만 원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었다.

보건복지부의 변명은 월 2~3만 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기관은 규모의 경계의 원리에 의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였지만 그것마저도 모의 계산 결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자명해지자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4개의 연대체에서는 각 소속 단체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을 보류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른다.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대로 활동지원사업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괴리는 너무 커서 어느 한 쪽의 대대적인 변화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기준법이 활동지원사업에 맞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활동지원사업의 단가 상승을 비롯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우처 단가의 정상화를 위한 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https://goo.gl/1pACsA>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단가 현실화 촉구 서명운동 링크)

필자는 활동지원사업의 이용자이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 어떤 입장에서건 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의 중요성은 백 번 얘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으로 생계는 물론, 자녀양육, 노후준비까지 가능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걸음은 근로기준법의 법정 수당 등의 여러 권리들을 활동지원사업에서 제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켜주는 것이다.

바라건대, 활동보조인들이 노동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그 날이 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서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대표로서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장애인들도 마음 편하게 완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여행 앞에서 나의 '존재'가 지워졌다



김상희

글은 잘 못 쓰지만 글 쓰는 것을
좋아함~^^;; 글 쓰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들만의 세상에 작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앞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글을 더 많이 쓰고 싶음~

☉ 당신에게 장애인 동생이 있다면?

나에게 여섯 명의 언니들이 있으며 나는 일곱 번째 막내로 자랐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님과 언니들 틈에서 번번이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신체에 대한 결정권(머리카락 길이 등)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울분을 삼키며 가족 안에서 나만 장애인이란 게 억울했던 적도 있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주장이 강해졌고 고집이 광장히 썬 아이로 변해갔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가족은 나를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 하나 나의 장애에 맞춰진 것이 없었다. 부모님은 집 안에서 휠체어도 못 타게 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타고 다니면 걷지 못하게 될 것이란 엄마의 우려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 방바닥에 흠집을 남기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언니들이 나를 업거나 안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불편함은 덜 느꼈다. 그런데 장애가 점차 진행되고 몸이 성장해가면서 언니들은 나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미 언니들만큼 성장한 나를 방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안고 이동해야 하는 집 안 구조는 어느 누구라도

버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버거움을 집 구조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이동할 수 없는 나의 중증장애만 탓했었다. 버거움이 일상이 되면서 점점 보조를 요청하는 것이 많아지는 나에게 언니들도 짜증내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런 언니들에게 나는 불평과 불신이 커져갔다.

사실 한 때 가족이 변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품은 적도 있었다.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가족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족도 나의 장애를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독립을 하고 나름의 사회적인 역할 속에 자리를 잡으며 살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친척들이 모이는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두터운 껍질이 가족을 에워싸고 있고 나는 그 껍질을 벗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가 세운 경계선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야 차별이 불쑥 불쑥 던치는 사회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야!!

몇 해 전부터 일곱 자매들만 있는 독방을 만들어서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다. 얼마 전 독방에 올해 아버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고있는 장애인도 많을 것이다.
나는 그 가족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 존중 받지 못할 존재는
없다고 말이다

지 팔순 잔치 관련 이야기가 올라왔다. 언니들은 잔치를 생략하고 일본 여행을 가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있는 독방에서 논의를 하기에 당연히 나도 같이 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언니들과 있으면 거의 말을 안 하거나(관심사가 다르고 할 얘기가 없다...;) 듣는 쪽이라서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다. 따라서 여행에 합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장애인과 다니는 여행이 자유롭거나 색다른 재미를 추구할 수 없을 것이 뻔하기에 이럴 땐 많은 장애인이 그러하듯 알아서 빠져주는 게 눈치 있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즐겁자고 여행가서 집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못 간다고 메시지를 보내려던 찰나에 "막내야 미안하다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말 안 하고 우리끼리 갔다 오는 것보다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알린다. 5월에 아버지와 식사하는 날에 와라"라는 메시지가 먼저 올라왔다.

순간 멍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가족에게 배제되었던 수많은 날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때의 그 날들은 나란 사람의 존재가 지워지고 삭제되었던 날들이었다. 나는 유명도 귀신도 아닌데 듣는 사람이 되어 버려야 했을까.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되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화가 났었다. 언니들에게 아직도 나는 너무나도 쉽게 배제해도 되는 사람, 마음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읽히는 게 분노스러웠다. 하지만 나의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 전에도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그건 차별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언니들한테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기적이고 철부지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만 같아서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자 나의 침묵에 이상함을 느꼈는지 한두 명씩 언니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고민을 했다.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연락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내가 느낀 이 분노를 표현해야 할까.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결국 나는 언니들한테 나의 불편한 감정과 화가 난 사실을 알렸다. 내가 화가 난 것은 여행 동행 여부가 아니라 왜 처음부터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와 나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고, 나는 당연히 배제해도 되는 사람으로 되고 싶지 않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금은 신랄한 분노를 담아 보냈다. 나는 더 이상 가족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 먼지만큼 가벼운 존재로 남고 싶지 않기에 내가 느낀 절망에 대해 말을 한 것이다. 메시지를 받은 언니들은 나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나를 동행한 여행계획을 세워 보자고 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굳이 언니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한 편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성하는데 으뜸으로 기여하지만 장애인과 대등한 관계로서 함께 소통하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회 편견을 넘어 편견 바깥에서 생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존중받지 못한 세상은 다른 사람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언니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로 나에게 서운하겠다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일에서 서운함의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서운함은 여행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서 드는 감정이고 나의 감정은 그게 아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고, 그 분노는 나의 존재에 대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여겨졌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언니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기에 마음은 풀렸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든다. 만일 내가 계속 가족한테 얹혀살고 버거운 존재였다면 지금처럼 사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 가족 안에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 장애인도 있겠지만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고 있는 장애인도 많을 것이다. 나는 그 가족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 존중 받지 못할 존재는 없다고 말이다.

희망의 봄을 불러봅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 이종란

저는 현재 반올림에서 상임 활동을 하면서 주로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들 상담하고 산재신청을 조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식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느리게 일하기가 좋습니다. 빨리하는 거 힘이 들어서요^^ 노동도 좋아합니다^^

◎ 황유미의 11주기.

“유미와 함께 맞는 봄, 희망을 피우다”

올해는 유미 씨의 어머니가 하늘나라의 딸 유미에게 편지를 못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유미 씨의 추모기일에 어머니가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하셔서 손수 쓰신 편지를 낭독해주시곤 했는데, 올해는 더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요. 스물셋 된 딸 황유미가 떠난 지 11년이 흘렀건만, 어머니는 딸의 죽음으로 생긴 병 우울증이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버린 딸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삼성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유미가 나고 자란 땅인 속초에서 계속 살았다더라면, 반도체를 만드는 클린룸에서 미지의 유독가스가 아니라, 그전처럼 푸른 동해바다를 보고 설악산 맑은 공기를 마셨더라면 유미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끝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아픈 어머니는 못 오셨지만, 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님은 누구보다 앞장서 딸 11주기를 챙깁니다.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한 11년 전의 그 모



습 그대로, 아니 그때보다 더욱 힘 있는 모습으로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은 산재 살인이다. 삼성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투쟁에 앞장섭니다.

유미 씨 영정을 든 황상기 아버님을 필두로 우리 80여 명은 3월 6일 유미 씨 기일에, 추모행진을 했습니다. 이재용 집 근처인 한남동 리움 미술관에서 강남의 삼성본관까지 4시간에 걸친 추모행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반도체 클린룸에서 일할 때 입었던 하얀 방진복을 입고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죽어간 80명의 사망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여전히 삼성은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감추며 노동자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있음을, 삼성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날씨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따사로운데, 우리들의 행진은 봄의 색깔이 아니라 하얗고 검은색이었습니다. 마치 노동자들이 화창한 봄에도 24시간 돌아가

는 클린룸에서 첨단 설비와 미지의 약품에 둘러싸여 하얀 방진복을 입고 눈만 내어놓고 일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추모 현수막에 “유미와 함께 맞는 봄, 희망을 피우다”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닌 희망을, 그리고 이 봄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삼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 **반올림 노숙농성 893일째.**
계속되는 삼성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얼마 전 이재용이 풀려났습니다. 박근혜, 이재용을 구속시킨 촛불항쟁이 정형식 판사에게 하루아침에 배반 당했습니다.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정경유착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80년간이나 이어진 부패한 삼성재벌의 정경유착 흑역사를 모르는 이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이재용을 구속시켰던 것인데 이를 정형식 판사가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울분이 들리는 것 같아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재용에게 준 면죄부는 뇌물죄뿐 아니라 산재살인에 대한 면죄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해진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2005년 10월 7일 시작한 농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숙농성 893일째. 그사이 3번의 겨울을 삼성본관 앞에서 맞았습니다. 농성 초반에 연대하러 오신 노들야학 박경석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농성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의 무책임의 시간만큼 분노가 이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올림 농성은 단지 그 상대가 삼성이라고 하는 것 빼고는 농성을 통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문제에 대해서 사

과하고, 보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삼성에 막대한 부를 쌓아올리게 만든 진짜 장본인인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부실로 인해 병들고 죽어간 이 문제에 응당 책임져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농성과정에서 2016년 1월 재발방지대책(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긴 했지만 아직 사과 문제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3의 기구인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도 중단된 상태로 900일이 되어갑니다. 농성기간에도 피해자들이 죽어갔습니다. 화학물질 공급업무를 했던 황 모님이 악성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른한 살 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지난 추석에는 이해정 님이 전신성경화증을 앓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삼성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만 해왔으니 반올림의 농성이 이어질 수밖에요. 삼성의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 그래도 희망의 봄을 불러옵니다.

돌이켜보면 삼성만 빼고 진전을 이룬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삼성왕국의 통제된 언론시장 속에서 처음에 우리가 가진 언론수단이라고는 거의 입소문 수준밖에 없었으나 지금 삼성 백혈병 문제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이들에 의해 여론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있음도 농성을 하는 3년의 과정을 통해 제법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진전은, 법원의 거듭된 산재인정 판결들입니다. 특히 2017년 8월 대법원은 첨단전자산업 희귀질환에 대해 산재인정의 증거를 노동자 측에 요구하는 정도를 대폭 완화하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조사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부실에 대한 것을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판단하도록 했습

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산재인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진전은, 법원이 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해 화학물질 정보가 담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삼성의 제왕적 군림에 약간의 제동이 걸리는 것이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산재 입증을 위해 싸워야 했던 피해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삼성만 바뀌면 됩니다. 삼성은 반올림의 농성에 응답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를 넘어선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을 위하여

선감학원 기획취재, 그 뒷이야기와 반성

≡ 하금철

어쩌다보니 장판에 들어왔다. 어쩌다보니 또 기자가 되었다. 이렇다 인생이 온통 '어쩌다'로 채워질까 봐 두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어쩌다'의 연쇄 덕분에 '용알이'가 아니라 공적인 '말하기'를 배우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산문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주제 넘는 꿈을 꾸며 산다.





지난 1월 12일 『비마이너』는 200여명의 언론학자들
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시상하는 제8회 언론상
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온 부랑아 수용시
설 선감학원 기획취재가 좋은 평가를 받아, JTBC 팩트
체크팀, 뉴스타파 '공범자들' 제작진, 『시시IN』 주진우
기자 등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는 『노들바람』지면에서도 소
개한 바 있고(2016년 가을/겨울, 통권 109호), 작년에는
노들야학 모꼬지로 선감도 역사기행을 다녀오기도 해서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현 경기도 안산
시 대부도 동남쪽에 위치한 선감도에 세워졌습니다. 조

선총독부는 “8세에서 18세 소년으로 불량 행위를 하거
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부랑아동을 감화시킨다
는 목적으로 선감학원에 아이들을 수용했지만, 실상은
거주지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잡혀온 아이들이
20만평에 달하는 농지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전쟁
물자 보급에 동원되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해방 이
후에도 국가는 선감학원을 그대로 유지해 일제 때와 똑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일명 ‘후리가리’로 불리는
경찰의 실적 위주 부랑아 일제단속에 의해 잡혀온 아이
들이 노역과 구타를 피해 섬을 탈출하려다 익사하는 일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감학원은 1982
년에 폐쇄됐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아픔
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비마이너』는 그 피해
생존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

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치유하는데 함께하고자 노
력했습니다.

『노들바람』에 “선감학원 기획 취재로 미디어공공성포
럼에서 상 받은 『비마이너』 이야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비마이너』와 같은 작은 매체가 이런
상을 받는 것은 좀 드문 일이어서인지, 몇몇 언론사와 수
상 소감과 취재 뒷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를 갖기도 했
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조금 ‘들떠서’ 『비마이너』
지면에 수상 소감 글을 독자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으로
신기도 했지요. 그 글에서 『비마이너』가 “한국사회 공론
장의 유리천장을 깨는 언론이 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
했습니다. 그 일부를 잠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과 같은 부랑인 시설의 비인간성이 이 땅
에서 최초로 폭로되었던 시점은 형제복지원 비리와 인
권침해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던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바로 직전입니다. (...) 1988년 민주화운
동진영의 기록을 담은 『민추사』에서는 독재정권이 저
지른 대표적인 비인간적 악행 세 가지로, 부천서 성고
문사건, 박종철 군 고문 살인사건과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정국을 강타한 중
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봉된 영화
「1987」에서 박종철 사망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사건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반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의 두 사건은 민주화운동을 촉
발시킨 주요한 사건으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끊임
없이 재평가되는 반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끝없는 망각
과 은폐의 시도 속에서 역사의 무덤에 수장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아니 ‘동료 시
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저 두터운 유리천장을 깨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단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거리를 나서고, 더 많은 동
료시민을 모으는 ‘활동가’의 일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
각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어떤 ‘~ism’
이 있다면 그것은 ‘저널리즘(journalism)’이기보다는
‘액티비즘(activism)’이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글은 약간 기분에 취해서 쓴 것이
었는데, 시간이 지나 기분이 좀 가라앉고 나니 저 말들
을 계속해서 곱씹게 됩니다. 위 글에서 저는 ‘동료 시민’
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시 보니 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 간 한국 사회가 그들의 존
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들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비시민’
의 자리로 내쫓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입
니다. 이런 대중적인 ‘암묵적 합의’를 뛰어넘어, 저는 감
히 그들과 우리가 ‘동료 시민’이라고 선언했고 저 자신
에게 ‘액티비스트(activist, 활동가)’의 사명을 부여했습
니다.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그것이 실상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제와 뒤늦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전쟁을 가해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사
유할 것인가”하는 주제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설명하기로는 한국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성적 운동이 시작될 2000년대 초반 무렵,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구호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구호는
베트남전쟁을 반성하는 운동을 대중화하는데 많은 기여
를 했지만, 어느 지점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합니
다. 강연에서는 그 사례로 한 평화활동가가 중학생을 데

상으로 강의 할 때 학생이 그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문구 밑에 한국의 태극기와 베트남의 국기를 그려 놓고 가운데에 하트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때 강연자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미안해요 베트남’ 대신에 ‘미안해요 한국’이라 적고, 그 밑에 태극기와 일장기 그리고 하트 표시가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 이 들까요?”

당연히 불쾌한 기분이 들것입니다. 36년간 식민지배가 안긴 상처를 고작 ‘미안하다’는 한 마디와 함께 경박스런 하트 그림으로 ‘통’치려고 할 때, 피해자로서는 모욕감마저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정치인들이 비리 사건 등에 연루되었을 때 늘 하는 말, ‘유감입니다’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사실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도덕적·윤리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선긋기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트남전쟁이 일어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에게 어떻게 ‘미안함’ 이상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연대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의 선감학원 기획취재에도 똑같이 적용해 봤습니다. 역시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접근이 피해자들이 겪어낸 고통과 지금 나의 안온한 일상과의 격차를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참상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전해준 피해자들

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미안함’의 무게는 한 줌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미안하다’는 말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해봤자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지요. 나 자신은 부랑인이었던 적도 부랑인으로 부당하게 낙인찍힌 적도 없기에 그들의 고통에 100% 공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반대로 내가 그 시대에 그들을 가두는데 가담한 적이 없기에 엄밀히 따지자면 그들이 겪은 고통의 책임을 나눠가져야 할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1960~70년대를 살아오지 않은 지금 우리 세대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미안해요”라 말하는데 그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해 도덕적 알리바이를 세우는 일일면서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감학원 기획취재가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내놓은 결과물이었지만, “30~40년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부랑아라 낙인 찍혀서 섬에 가둬졌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것을 방조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미안해 해야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재로 나갔던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라는 비슷한 결론으로 끝을 맺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이었지만 그만큼 한계도 많은 결론이었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우리의 글 속에서 항상 최종적 수신자는 ‘국가’였습니다. 물론 1차적 수신자는 독자 개개인이었지만, 글의 결론이 언제나 ‘국가의 사과’로 향하고 있다면 1차적 수신자는 그저 지나가는 경로일 뿐입니다.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구도였을까?’ 하는 의문이 이제 와서 떠오릅니다.

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문제가 제기될 때마

다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보여 온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부인(denial)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도 공범이다”라고 말하는 고백(confession)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진일보한 태도인 것 같지만, 이는 수동적 인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백만으로 사법적 책무가 이행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실천이 담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실천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배상 책임의 주체는 국가이지 시민은 아닙니다. 그리고 훗날 만약 국가가 배상을 완료한다면, 그나마 ‘우리’의 도덕적 책무도 끝납니다. 어떤 순간에도 피해자가 아니었던 시민들은 제삼자로만, 기껏해야 피해자를 동정하는 관찰자적 시선의 주체로만 남을 뿐입니다.

저는 국가폭력을 규명하고 과거사를 치유한다는 것이 단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이를 국가가 접수해서 일정한 배상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료 시민’

의 역할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는 가해자인 국가와 선감학원 원생이었던 피해생존자 뿐만이 아닙니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비극으로 반복된다”는 말은 그저 누군가가 멋있어 보이려고 한 명언이 아닙니다. 과거사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오늘의 역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었던 시민’은 이 사태에 더 이상 구경꾼이어서도 안 되고, 피해자를 동정하며 스스로의 위안을 삼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사를 지금/여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의 운동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장애인, 노숙인 등을 시설에 수용하는 야만의 시스템을 깨는 운동과 함께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이 한 발짝 더 나아가 수 있도록, 『비마이너』가 항상 앞장서서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들의 식구들도 모두 함께해요!



노들은 사랑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갔다가...!

만남 노들, 그리고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미경 소장 인터뷰



김상희

글은 잘 못 쓰지만 글 쓰는 것을 좋아함~^^;; 글 쓰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들만의 세상에 작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앞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글을 더 많이 쓰고 싶음~



미경

열이 많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열을 식혀 줄 선풍기와 얼음을 늘 옆에 둔다. 스릴을 좋아한다. 장애로 습득된 신중함과 소심함으로 절제된 삶을 살고 있지만 호시탐탐 일탈을 노린다. 호기심과 열정.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지만 최근 급격한 몸의 변화로 다른 실천 방식을 모색 중이다.

상희 노들야학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떠한 계기로 다니셨으며 얼마동안 다니셨나요?

미경 1997년~1998년 약 2년을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 다니게 된 계기는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이 어느 날 노들야학이란 곳이 있는데 놀러가자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갔다가 다니게 되었어요. ㅎㅎ
당시 저는 고졸 검정고시를 이미 패스한 상태였지만 학교에 전혀 다닌 경험이 없었고 혼자 공부한 거라서, 야학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예상과 달리 노들야학에서 장애운동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죠.

상희 그 당시에 미경님이 보고 느낀 노들야학은 어떤 곳이었어요?

미경 그 당시 노들야학은 아차산 중턱에 있는 정립회관이란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 때에는 야학 학생과 반수 이상이 정립전자에서 낮에는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수업을 받으셨고, 저와 같이 외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활동지원제도도 없었고 이동권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학에 다니기 위해서 교사들이 이동보조를 해야 했었어요. 말 그대로 학생이나 교사나 노들야학이란 곳을 다니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죠. 사실 아차산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고행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언덕을 매번 오르내리게 하는 원동

력은 무엇인가 신기하기도 했죠.

이유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야학이란 공간에서 정상성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시달렸던 영혼들이 안식을 찾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행동하고... 그런 게 다 원동력이었던 같아요. 낮에는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야학에 일찍 와서 어슬렁거리며 놀아져 있다가 꼼지락 꼼지락 수업 외에 다른 활동들을 도모하기도 하고, 간혹 집회에 가서 열심히 팔뚝질 하고, 저녁에는 피곤하여 반쯤 감긴 눈으로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마친 늦은 밤에는 마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듯 초롱해진 눈빛으로 술잔을 기울이는 일상이 반복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느슨함과 치열함이 공존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상희 야학에 함께 다녔던 분들 중에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 분이 계신가요?

미경 연락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죠. 그런데 사실 현재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다수가 노들야학 출신이라서 특별히 연락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활동하면서 자주 만나는 분들도 많아요. ㅎㅎ

상희 야학 다닐 동안 기억에 남을 에피소드나 인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미경 특별한 에피소드가 떠오르기보다는 야학 하면 이동과 술에 대한 기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리프트도 없어서 수많은 계단을 목숨 걸고 오르내리고(그 당시 수동휠체어였음), 그것도 모자라 아차산 언덕을 올라가야 했는데 정말 이동 보조한 교사들이 고생 많았죠.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을 당시 수업을 마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거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의 뒷담화도 하고, 또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집회에 나가게 되고 ㅎㅎ

이런 고된 이동과 술을 통해 쌓여진 관계와 시간들 때문에 많은 동문들이 야학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ㅎㅎ;

싶어서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상희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에서 햇수로 12년을 활동하셨는데 12년 동안 활동하게 된 동기부여나 힘은 무엇일까요?

미경 생략

상희 미경님에게 장애여성운동이란?

미경 지금은 그냥 저의 삶이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가요? ㅎㅎ

상희 제가 알기로는 대학 졸업할 때쯤 노들과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 제안을 동시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ㅎㅎ 장애여성공감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경 노들야학을 통하여 장애운동을 만났고, 앞으로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게 되었지만 '장애'만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차별의 경험들을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노들야학을 나온 후 장애여성공감에 우연치 않게 회원활동을 하면서 세상에는 장애/비장애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들이 존재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여성'인 나의 경험을 드러내고, 보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관점에서 운동을 하고

상희 이번 장애여성공감 20주년을 맞아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사실 장애계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불구" 단어를 선택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경 국가나 사회는 보통 장애만이 아니라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다고 규정되어지는 이들을 '불구'라고 낙인찍고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는데요. 하지만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정상과 비정상은 누구의 기준에서 나누어지는지를 질문하며, 결국 '정상'은 권력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허구일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고, 시대마다 요구되어지는 '정상성'에 불화하는 '불구'들이 연대하며 세상을 바꾸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상희 끝으로 노들이 예전보다 조직이 많이 커졌고 앞으로 더 많은 내용으로 규모가 커질 것인데 이것만은 변하지 않고 지켰으면 하는 가치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미경 글썄요,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처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배제되는 이들이 주체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터전이 되는 것'. 그것이 야학이 지금까지 존재해온 이유이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배움의 끈을 잇다, 학봉장학금

김진수

봄이면 떠오르는 시 한토막이 있습니다.
'봄 놀라서 뒷걸음치다 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 라는 구절입니다.
봄은 놀라고 또 놀라는 계절이라고
저는 읽었는데요. 올 봄에는 부디
행복한 일들로 놀라고 또 놀라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이번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의 주인공은 학봉장학회입니다. 장학회라는 말에서 보듯, 야학의 학생들에게 매해 장학금을 후원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찾아가지 않고 학봉 장학회에서 야학으로 오셔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봉장학회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보다 더 노들에 대해 궁금해 해주셔서 인터뷰를 하는 건지, 받는 건지, 잠깐 헛갈렸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그 만남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학봉 학봉 장학회 수여자 측과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노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학봉 저희가 지금 몇 년째지요?

노들 벌써 4회째더라고요.

학봉 맨 처음에 이우 학교에서 전광필 선생님의 소개로 시작했는데요. 장학회 하면서 같이 하는 이사님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이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하면 어떨까? 처음엔 다른 곳에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마침 노들이 학교 체계로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하면서 노들야학이 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과격한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ㅎㅎ) 일단 체제가 딱 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시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믿음이 갔어요.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하고 싶어요. 5년 10년 그 이상 길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노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건, <노들바람>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이라는 코너에 학봉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서인데요. 후원인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처음에 만나면 후원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봉장학회

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학봉 학봉은 선친의 아호입니다. 아버님이 재일 교포세요. 아버님이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셨어요. 아버님 교향이 전라남도 화순인데요. 그곳에 아직 친척도 많이 있고요. 고향에서 아버님이 장학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이 나온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구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장학사업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30, 40년 가까이 했으면서도 실제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고 한다면 재단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12~3년 전에 재단을 만들었어요. 화순에. 초등학교생들은 의무교육이라서 학비는 내는데,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당시 IMF 사태가 터지고 얼마 안 된 시기여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고향 친척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자비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튼 일단 그런 상황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만이라도 지원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순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요.

지금 화순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화순교육청 산하에 있어요.

감독을 받게 되었거든요. 장학금의 반 정도가 화순에 나가요. 나머지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 노들야학, 서울대학교, 다문화 가정의 대입자녀들을 대상으로 나가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학금 대상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똑똑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장학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것보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서 하자, 그런 와중에 여기서 노들야학과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학 사업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들이 얽히고설키고 있는데요.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 저출산 사회 등 복잡하고 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해결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들춰내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자, 해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같이 들여보자는 취지로 논문공모사업과 연구지원 사업을 서울대하고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주요 사업입니다.

노들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요. 같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세요. 재미있는 질문도 좋아요~

학봉 내일이 큰 행사네요.

노들 네 거기가 선감학원이라고, 부랑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인데요. 다크투어라는 테마로 모꼬지를 갑니다.

학봉 네 저도 티비에서 봤어요. 삼청교육대처럼 끌려가서 피해자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티비에 나오더라고요.

노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희생자분들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저희 행사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와 같이 선감도를 가시면 어떨까요?

학봉 매해 가는 건가요?

노들 아니요. 그곳에는 이번에만 가구요.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학봉 내년에 가게 되면 알려주세요.

노들 네! 내년에 그럼 같이 가는 걸로 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학봉 박경석 교장샘은 몇 년 되신 거예요?

노들 94년부터 있었으니까요. 24년 됐어요. 저는 자원 활동을 하다가...교장이 됐지요.

학봉 지금 교사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노들 30명 정도 됩니다.

학봉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노들 학생들은 65명 정도예요. 이번 장학금은 개학해서 장학금 수여식까지 5회 이상 출석한 학생들에게 드렸어요.

학봉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드렸나요?

노들 처음에는 탈시설 하신 분들 위주로 장학금을 드렸어요. 시설에서 나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자립을 하시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출석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학봉 장학금을 주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나요?

노들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구요. 야학이라는 특성이 일반 학교처럼 출석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졸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출결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학생은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는 학생은 또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학생들 중심으로 주려고요. 공동체적 신

뢰를 가지고 나오는 학생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전 시설에서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기도 하구요.

학봉 시설이라면 보통?

노들 장애인들의 거주 시설이라고 해서요.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돼서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봉 어디 있나요?

노들 전국 곳곳에 있어요. 시설에 있으면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에 야학 학생들 중 대부분은 그런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거구요.

학봉 수용시설인 거네요.

노들 그런 분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야학 근처에 집을 얻고 야학도 다니고 하는 거지요.

학봉 그럼 학교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노들 학생들은 무상으로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후원주점도 하는 거구요.

학봉 학생들의 호응은 어때요?

노들 처음 오시면 좋아하세요. 시설에서 계시다가 야학에 오면 좋아하지요. 야학학생들은 시설에서의 삶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시설 밖의 삶은 대부분 좋아하시죠.

노들 그런데 우리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이사장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랑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학봉 와이프가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일본에서 살았고 대학은 한국에서 나왔고요. 같은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극 보는 것을 좋아해요.

노들 저희도 연극반이 있습니다.

학봉 제가 대학을 마치고 대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섬유 무역을 했습니다.

노들 저희 아버지도 섬유 사업을... (교장샘 개인사.. 많이 들어서 생각합니다...)

노들 맥은 어디신가요?

학봉 일본 동경 근처 아사쿠사예요.

노들 저도 일본 도쿄를 가봤어요.

학봉 일본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다니기에 환경이 어땠어요?

노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보다 지하철 이용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후진 데가 있는데요. 서울은 지금 저상버스 비율이 40% 정도 되는데, 일본은 어찌지 확인하러 가봐야겠네요. 또 우리 얘기를 하네... 오시면서 궁금하셨던 것 없으셨나요?

학봉 노들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노들 그런 분들이 있지요?

학봉 학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노들 수급자 분들은 대부분 지원이 돼서 학비적인 부분에 대해 부담은 없어요. 그래도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담은 있지요. 그런데 노들야학 학생들 중에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나 대학입시 같은 것들은 그분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학봉 야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까요?

노들 수급권자라고 하면 한 달에 대략 1인당 40~5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봉 40만원에서 50만원 받으면 일반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노들 앵겔지수에 따라 다를 텐데, 밥 먹고 생활하는 데

2018년 03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 강남훈 강병완 강복현 강선아 강성운 강수혜 강영미 강용원 강유선 강정자 강주성 강현욱 강혜민 강희관 강희연 고경신 고경화 고동수 고명훈 고명희 고병권 고선희 고수진 고승현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제관 공대식 공명렬 공선화 공정옥 공태윤 광노근 광상아 광성자 광영미 구수준 구승기 구자욱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병주 권영주 권영진 권오현 권용희 권은영 권익재 권종근 권진영 권태국 권혁은 권현기 김가경 김각균 김건옥 김건형 김경남 김경은 김경혜 김관희 김광국 김규리 김규태 김근식 김금례 김금순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남주 김누리 김대희 김도경 김도현 김동림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란희 김명애 김명학 김명화 김문수 김문주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현 김민 김민림 김민아 김민영 김민자 김민호 김민희 김범순 김범식 김병모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봉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원 김상희 김석규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은 김성현 김성희 김세영 김소명 김소희 김수경 김수영 김수한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순남 김승혜 김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지 김연희 김영년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숙 김영욱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진 김용태 김우경 김원숙 김유미 김유정 김윤경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이중 김이준 김인숙 김인자 김재경 김재양 김재희 김정미 김정민 김정순 김정은 김정하 김정현 김종윤 김종호 김종환 김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희 김지은 김지환 김진수 김창배 김탄진 김태승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근 김필순 김한민 김한솔 김한준 김현명 김현식 김현영 김현주 김현지 김형배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희정 김희찬 김희창 김희현 나선영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정민 남지현 남효진 노경애 노규호 노미경 노상경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노희선 노희정 류영욱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맹보영 모경훈 문건화 문경희 문병민 문병준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민아영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광수 박금숙 박누리 박란희 박명숙 박민경 박민영 박보근 박상일 박상호 박서희 박선미 박선우 박선우 박선은 박성욱 박성환 박성희 박세단 박세레나 박세영 박세호 박수인 박수진 박승호 박시백 박재경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윤솔 박완신 박은미 박은정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정수 박정숙 박정원 박정희 박종철 박종철 박종화 박준호 박지민 박지영 박지호 박진우 박찬양 박철우 박태만 박하순 박현미 박현희 박홍석 박희선 반영신 방복순 배경원 배덕민 배문섭 배승천 배안나 배운주 배재현 배진민 배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윤희 백재선 변영옥 서기현 서남교 서동석 서명순 서영아 서미선 서민원 서민희 서봉경 서옥영 서유나 서은수 서정웅 서주형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장희 성희옥 소현미 손동각 손병갑 손성권 손성환 손은주 손자경 손정수 손제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현목 손희경 송무림 송병준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우영 송정규 송중호 송주훈 송창국 송현정 신미현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승애 신원실 신영근 신원정 신은덕 신은희 신원식 신점숙 신진 신현준 심미경 심보름 심보름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정구 안경모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연주 안영춘 안정애 안정원 안정은 안준녀 안준희 안지혜 안향미 안홍경 안희옥 양석우 양수경 양수정 양운근 양유진 양이승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어수진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연호준 오미영 오민정 오보람 오상만 오세령 오영철 오원주 오은영 오정환 오정자 오정희 오지은 오현숙 옥샘 우승명 원명재 원성현 위순철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영순 유지영 유창재 유혜경 유희준 윤경훈 윤기범 윤길중 윤동주 윤영섭 윤미라 윤미선 윤민진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인진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종술 윤준서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수 이간학 이건호 이건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운 이경훈 이경희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규식 이근희 이금희 이기순 이길용 이나라 이동진 이두혁 이라나 이라라 이리나 이미경 이미나 이미리엄 이미영 이미정 이범민 이비함 이상림 이상용 이상우 이상준 이상희 이서윤 이서준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호 이성희 이소영 이소정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수현 이순용 이승민 이승현 이승훈 이말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덕 이영란 이영미 이영애 이우현 이원진 이유미 이윤경 이윤욱 이윤주 이은숙 이은애 이은자 이은정 이인영 이장우 이재령 이재숙 이정실 이정은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실 이종현 이주오 이주옥 이준길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찬미 이창열 이학인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욱 이현진 이호연 이호영 이호중 이효

쓰이는 거지요.
학봉 지금 우리가 노들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40여명에게 나눠주면 일인당 십 몇 만원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노들은 등록금이 있나요?
노들 없습니다. 대신 학생회비가 있어요. 학생 자치적으로 걷는.
학봉 학비도 없고 오면 밥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그러는 거군요. 학생들이 받는 십 몇 만원의 장학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들 장학금이 학생들에게는 중요하지요.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수급비만으로 부족하거든요.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휴학을 했다가 복학한 학생도 있고요.
학봉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란 게 노들 말고 서울에 더 있나요?
노들 서울에 3,4군데 있고요. 그 중에 노들이 제일 큰 규모지요.
학봉 그렇군요.
노들 학생들이 노들에 다니면서 학봉장학회라는 곳에서 학생들의 활동에 지원을 해주고 그런 친구의 관계에 있다는 게 삶에 지지가 되고 공감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어식 때 전체의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각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학봉 내년에 할 때 끝나고 밥 먹을 때 디저트 같은 거라도 더 준비해서 잘 먹읍시다.
노들 파티를 하면 어떨까요?
학봉 좋네요. 파티를 합시다.
노들 아무튼 소중한 인연 덕분에 저희는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학봉 실제 도움이 돼야 하는데...
노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봉과 관계를 갖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을 알아가고 학생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열심히 나오기도 하구요.
학봉 올해 장학회 행사가 끝나고 이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들아 학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노들아학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 올해와 똑같이 나오는 분들에게 20만원 정도로 하자는 걸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노들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저희는 참 좋습니다. 내년 행사는 노들에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학봉 해마다 바뀌어서 진행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회에 서울시 담당하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알리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노들 네 좋네요.

학봉장학회에서 말하듯, 장학금의 목적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배움의 끈이 끊어진 사람들의 끈을 이어서 길게 만들어 주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학금일까요? ^^) 그런 의미에서 노들아학 학생들은 매해 작고 아름다운 끈을 선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끈을 서로 잘 이어 붙여, 학봉장학회와 노들의 관계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아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지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정 이효진 인한순 임광열 임나미 임동근 임산하 임소연 임영희 임원택 임유청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주현 임채원 임춘학 임하연 임향연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순인 장옥란 장원 장정아 장정환 장지희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문갑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옥 전준규 전형진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동식 정명진 정미란 정민구 정상업 정상욱 정선애 정선옥 정성락 정성철 정연숙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용균 정용안 정용일 정용훈 정우영 정우중 정우준 정운영 정유진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정민 정정희 정준권 정중화 정중훈 정지민 정지영 정지혜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택용 정현강 정현진 정현찬 정혜림 정혜영 정희진 조경애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봉현 조사람 조상지 조선호 조성진 조수안 조승하 조원일 조운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용현 조이라 조자영 조재범 조한나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주상연 주상희 주영은 주윤춘 주은아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영숙 지혜를 진영옥 진영인 진태원 차순석 차중원 채운주 채이래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천진수 최귀선 최귀숙 최동호 최미란 최민경 최병훈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선호 최승우 최영숙 최영식 최영은 최영자 최우영 최은경 최은숙 최은아 최은정 최은화 최은희 최재호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정희 최찬일 최천봉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진 최혜영 추경진 하경남 하금철 하정자 한경훈 한남희 한래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숙자 허순인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원우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승대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진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무초(무명) 황성운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강귀화 강수혜 고명선 공한복 공공운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공동정범상영후원 김미선 김선심 김순화 김연정 김용철 김태은 김한솔 김홍숙 남완승 대한불교조계종 대성사 류동훈 무기명1 무기명2 무기명3 박경선 사랑의후원금 사회적기업노란들판 서금석 송영자 송인교회사랑부 안성희 엠알 엠글로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선실 오장환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수현 윤종배 윤지형 이한진 이현숙 이현우 이효상 일우 재)아름다운동행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옥순 조광배 조로장애인복지관 주식회사 THL 착한콜위드고 최수임 허병권 황미향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물품 후원

- 01월 • 안선희 블루투스 스피커 외 문구류/ 성북구푸드뱅크(길음복지관) 빵, 컵라면, 국수, 봉지라면 등 / 최연숙 굴 1박스 / 노경임 복분자 음료수 / 정점순 딸기 5팩 / 서난희 도너츠 한 상자
- 02월 • 한살림(되내들 협동조합) 쌀 3상자/ 이상엽 무 한 상자 / 김명선 떡 4 상자 / 김중분 딸기 1팩 / 김형조 김 1박스 / 성북구푸드뱅크(길음복지관) 빵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쌀 10kg,라면 5박스 / 임난이 굴, 사과 / 무기명 트라스트겔 근육통 연고 6개 / 유지영 굴 1박스
- 03월 • 미니팜협동조합 콧감2상자 / 허을 제주감귤 스틱캔디 100개 / 이미완 두유 96개 / 김지현 쌀 20kg / 전세빈 떡 2박스 / 스파인2000 김치 4kg / 황미향 시사인 월간지 2018.3월~2019.월 정기 구독권 / 삼척평화 쌀 40kg / 책방이음 쌀 20kg / 김지민 퍼즐 4박스 / 김희찬 베지믹 4박스, 초코파이 5박스 / 조재범 식용유 2개 / 변명희 월 6개 / 성북구푸드뱅크(길음복지관) 빵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ci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하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예쁜 짓을 해도 엄마, 아빠는 살짝
웃다 말았어. 근데 오빠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 아빠는 손뼉을 치며
떨 듯이 기뻐했지. 오빠가 미워. 오빠가 자폐증인 것이 싫어. 다른 집
아이들처럼 오빠가 싫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울음이
특 터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울어 봤을까요? 나는 언젠가부터 울지 않
는 아이였습니다.

『바람을 가르다』 중 <천둥 번개는 그쳐요?>

글 김혜온 / 그림 신슬기 / 샘터 / 2017